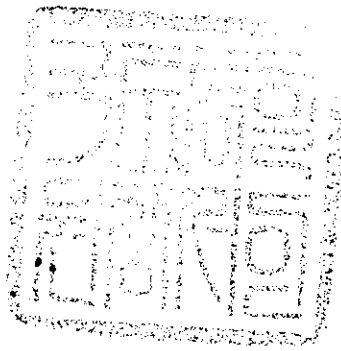


#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와 正統性

1975. 9.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9.

研究責任者	李	基	遠
研究員	金	善	亨
研究員	金	漢	植
研究員	金	得	柱

# 目 次

序 論 .....	3
第 1 章 共產主義理論과 民族主義 .....	7
第 1 節 마르크스 . 엥겔스의 國家觀 .....	7
第 2 節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	10
第 3 節 스탈린의 民族主義理論 .....	14
第 2 章 共產諸國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의 實際 .....	23
第 1 節 蘇 聯 .....	23
第 2 節 中 共 .....	34
第 3 節 東 歐 .....	42
第 3 章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民族史的 正統性 .....	47
第 1 節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의 悲劇 .....	47
第 2 節 民族主義機能面에서 본 共產國家의 非正統性 .....	55
第 3 節 正統性的 概念面에서 본 共產國家의 非正統性 .....	61
結 論 - 特히 北韓의 경우 .....	65



## 序 論

오늘날 北傀는 이른바 革命傳統을 造作하여 對內外的으로 宣傳하는 한편 金日成 主体思想의 体系化를 試圖하고 北韓住民들에게 그에 관하여 學習하도록 強要하고 있는 實情이다.

南北韓으로 分斷되고 있는 韓民族은 이러한 狀況下에서 同質化는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異質化로 줄다름치고 있음은 民族的 悲劇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民族的 悲劇을 하루 速히 排除하고 平和的인 方法에 의한 國土統一 이라는 目標達成을 위하여 우리는 大韓民國이 民族史的으로 보아 正統性을 가진 國家이며 政府임을 理論的으로 定立해야 할 必要性이 있다.

本研究課題인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와 正統性>은 바로 우리에게 直面하고 있는 大韓民國이 民族史的으로 보아 正統性을 가진 國家이며 政府임을 体系化하는데 畀與하고자 하는데 그 研究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正統性의 概念은 社会科学에서 利用되고 있는 여러 用語의 概念이 그러하듯이 歷史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다시 말하면 正統性의 概念은 歷史的 變遷過程을 밝아왔던바 그 過程을 要約한다면 다음 表에서 보는바와 같다.

正統性 概念의 歷史的 變遷

時 代	概 念
古 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司法上 合理的인 것</li> <li>○ 統治權 世襲의 意味</li> <li>※ 合理的인 것</li> </ul>
中 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gustine : 어떤集團, 政府도 神의 都市를 떠날때 正統性 喪失</li> <li>○ Padua : 人間社會의 法律과 人間의 同意가 正統性의 基盤</li> <li>※ 法에 의한 權力</li> </ul>
近 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ohn Locke : 市民의 合意와 同意가 正統性의 基盤</li> <li>○ Max Weber : 信賴에 基礎하여 服從을 誘導하는것</li> <li>○ Carl Schmitt : 合法性과 正統性은  다른</li> <li>○ Ferrero : 民主的 正統性은 多數派 및 少數派 2 個의 支柱에 依存</li> <li>※ 立憲君主權力의 合法性</li> </ul>

오늘날에 있어서는 治者と 被治者間의 同意, 合法性, 合理性을 土臺로 한 權威의 能力이 正統性의 概念으로 發展되었다.

즉 正統性이란 一次的으로 그 國家의 全構成員들이 國家主權의 行使에 服從할 때 그 國家와 政府는 비로서 正統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理解되는 것이다.

國家의 全構成員들이 國家主權의 行使에 대하여 正當하다고 認定하고 그에 服從하게 되는 屬性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支配的 要素는 赤裸々한 物理的인 強制力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權威로서의 象徴 (symbol) 인 民族主義 (nationalism) 이다. 民族史的인 正統性이야말로 眞正한 意味에서의 正統性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本研究의 範圍는 첫째, 本質적으로 獨로레타리아 國際主義에 立脚하고 있는 共產主義理論이 民族乃至 民族主義를 어떻게 把握하려고 했는가 - 理論面 - 둘째, 共產國家에 있어서 民族主義를 어떻게 戰略, 戰術적으로 利用하면서 展開해 왔는가 - 實際面 - 이며 끝으로 果然 共產國家에 있어서 正統性이 民族史的인 正統性을 繼承하였는가를 分析, 評價하였다.

한편 研究方法에 있어서 <第1章 共產主義理論과 民族主義>와 <第2章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民族主義展開過程>은 歷史的이며 敘述的인 接近方法을 援用한데 대하여 <第3章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正統性> 問題는 機能的인 面에 重點을 두려고 試圖하였다. 따라서 研究方法上에 있어서 首尾一貫하지 못했음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쪼록 研究目的을 達成하는데 조금이라도 寄與할 수 있다면 研究者들의 榮光이라고 생각하는 바다.

## 第 1 章 共産主義理論과 民族主義

### 第 1 節 마르크스·엔겔스의 國家觀

共産主義는 性格上 그 基本바탕을 國際主義에 두고 있다. 따라서 祖國이나 民族이라는 問題는 그 自体로 絶對 存立의 意味를 지니지 못한다. 대체로 共産主義者들이 이러한 問題를 意識的으로 疎外시키려 해왔음도 그러한 理由에서인것 같다.

그러나 18世紀 以後 政治研究의 核心課題가 된 民族主義의 問題를 어떠한 形態로든지 解決할 必要性이 切感되었고, 兩次의 大戰을 겪고난 後로는 더욱 그러했던 現實上의 課題가 되었다. 이러한 論議는 어차피 國家觀에 대한 共産主義의 基本立場을 밝히는데서 糾明될 수 밖에 없는 일이며, 그만큼 內容上의 多樣성과 現實適応上의 複雜性을 前提로 하는 問題이기도 하다.

먼저 共産主義 理論上에 投影되는 그들 國家觀의 實體부터 살피는 것이 順序인 것 같다.

広範한 社會主義의 諸 類型中에 특별히 共産主義가 지닌 特性을 살핌에 있어서도 國家存在에 대한 認定의 程度에 대한 問題가 큰 比重을 차지한다. 같은 社會主義의 범주내에서도 웨비안 社會主義(Fabian Socialism)의 경우는 國家의 權力을 最大限 制限할 것을 主張하나 本質적으로 國家의 權威를 否認하지는 않은 것임에 비하여 共産主義를 비롯하여 길드 社會主義(Guild Socialism)와 쌍디카리즘(Syndicalism) 및 無政府主義(Anarchism)는 國家의 權威를 否認하고 있음에는 一致되며, 또한 꼭같이

國家의 權威를 認定않는 立場이면서도 길드 社會主義 ( Guild Socialism ) 가 길드 團體의 代表機能을 認定하는 만큼의 國家特殊領域을 肯定하는 側面이 있음에 대하여, 戰略的 目的에서 이긴 하나 勞動者가 다른 政黨이나 團體를 利用할 수 있다는 感性에 있어 政治的 權威認定의 융통성을 엿보이는 Syndicalism의 立場에다, 理論이나 實踐에 있어 철저한 反國家權威의 無政府主義, 그리고 本質적으로 國家를 否認하면서도 實踐過程에서 過渡期的인 國家體制를 認定한 共產主義등의, 國家權威의 認定程度를 基準으로 한 社會主義의 類型的 区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共產主義에서 國家를 否認하는 立場은 特히 마르크스의 「勞動者에게는 祖國이 없다」는 「共產黨宣言」에서 明確히 나타난다. 共產主義社會의 建設이라는 理想實現의 過程에서 國家라는 權力機構가 拒否될 것이다. 이렇게 拒否된 國家觀 역시 唯物史觀의 바탕에서 說明되고 있다. 人間社會의 不斷한 變化는 社會의 物質的 生産力, 즉 經濟의 變化에 따라 반영되는 것이거니와, 國家도 社會發展에 따라 나타나는 經濟的, 歷史的 社會現象에 不過하다고 본다. 따라서 國家는 自然的인 制度가 아니라 Engels가 말한 바의 社會가 서로 敵對되는 두 階級으로 分裂되었을 때 敵對되는 階級을 억제하기 위한 機構로 說明된다. 資本主義國家는 經濟的 支配階級인 資本家의 利益만을 追求하는 總資本家이며 이를 위한 軍, 警察, 裁判所등의 特殊強制機構와 관료 등의 特殊人間集團이 存在한다고 본다. 階級鬭爭은 政治的 鬭爭이기도 해서 財產關係의 現行制度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強制的인 힘의 制裁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說明은 原始社会 以後 人類史上 不斷한 例示에 의해서 証明되고 있다고 主張하였으며, 事實上 이러한 主張이 19세기 當時 社会主義者들의 共感되었던 바로서, 그 論旨은 主로 國家의 機能이 行政的 役割 以上の 支配階級の 独占的 強制機構라는데 있었다. 마르크스는 人間社会의 가장 基本的 착취가 存在하는 限 國家도 存在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國家를 唯物史觀의 具體的인 適用의 实例에 不過하며, 生産關係를 바탕으로 惹起되는 階級鬭爭의 反映으로 간주하였다. 본시 헤에겔의 追徒者였으면서도 國家理論에 있어서 헤에겔의 國家 絶對性的 認定과는 正反對로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國家의 階級에 대한 從屬的 存在로 結果케 한 것이다.

따라서 階級없는 共產社会가 이룩되었을 때는 階級鬭爭의 單純한 産物에 不過한 國家는 自然히 없어질 (wither away) 것이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國家를 經濟的, 社会的 歷史現象으로 보아 階級없는 共產社会의 到來時에는 國家는 自然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였고, 共產主義社会의 建設過程에 있어서도, 國家 否認의 國際主義에 바탕두고 있다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留意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國家의 衰滅時期에 관한 것이다. 이 問題가 프롤레타리아 獨裁論과 連結되어 共產主義運動에 있어 많은 意見의 對立을 낳게한 契機가 되었다는 點과, 또한 여기서의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의 主張이 共產

主義와 無政府主義와의 서로 區別되는 重要한 基準點이 되었다는에서 重要視되었다.

## 第 2 節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이 특히 共產主義의 民族이나 國家問題와 關聯하여 갖는 意味로는 共產主義의 國際主義的 性格이 어떻게 國家中心의 共產主義實踐運動으로 변모되었는가를 說明해주는 기초가 된다는 데 있다.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관하여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明確하게 強調하여 提示한 바는 없다. 단지 마르크스가 「고오다綱領의 批判」 (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1875 )에서 블란서 革命家 Louis Auguste Blanqui ( 1805 ~ 1881 )의 「블란서에 있어서의 階級鬪爭」 ( Class Struggle in France, 1850 )에서 이를 引用하여 하나의 過度的 단계로 言及한 바는 있었으나 明確히 主張된 것은 아니었다.

經濟的 착취가 소멸된 後, 即 生産手段이 社會化된 後의 狀況이 具體的 說明이 아니라 概括的으로 그려진 뿐이다. 더 以上 所有者 階級이 存在치 않음으로 모든 市民이 所有者이며 同時에 生産者가 되어 人間搾取의 道具로서 어떠한 形態의 強制機構도 더 以上 必要없게 된다. 여기에 다만 마르크스가 國家와 政府를 區別하여 支配階級の 옹호기관으로서 國家는 存在치 않더라도 自律的 法律의

機能 即 最少限의 政府로서의 機能은 認定하였다. 社会的 規則 같은 것이 存在하며 이를 管理할 管理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國家가 무너지고 共產主義社會가 建設되는 期間에 어떠한 過度的 體制가 있어야 한다고 明確히 主張한 바는 없다.

아마도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必要性에 대한 確實한 主張者는 레닌에게 돌려져 異議가 없을 것 같다. 특히 1917年 8月에 脫稿된 것으로 알려진 레닌의 「國家와 革命」은 이 問題에 대한 代表的 著述로 손꼽힐만 하다.

여기서 레닌은 부르조아國家가 파괴된 後에 프롤레타리아 獨裁政府形態의 樹立의 必要性을 明確히 主張하면서 이를 마르크스나 Engels의 理論과의 連結에 修辭的 勞苦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레닌은 Engels가 「프롤레타리아는 國家를 파괴한다」는 意味와 「國家가 消滅한다」라는 意味를 區別하였고 따라서 「國家를 파괴한」後에는 過度期的 단계가 必要하며 그 後에 「國家의 消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解釋해야 될 것임으로 이는 自然히 中産階級으로서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을 Engels 自身도 暗示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服從이나 統制나 監督과 書士없이 는 해나갈 수 없는 그러한 人間性을 가진 그대로 우리는 社會主義革命을 遂行하려고 願하는 것」이라고 前提한 레닌은 「武裝前衛隊에 대한 被擄取階級の 服從이 必要」하며 「人類를 賃金奴隸에서 解放」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行해진다는 그의 「國家와 革命」에서의 說明이다.

그러나 여기에 푸로레타리아 獨裁가 政治的 獨裁主義의 형태를 取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에 대한 回答에는 매우 궁색한 策로 남아 있다. 단지 장차 있을찌 모르는 反抗 세력의 準동우려에 대한 방어수단이라는 힘든 변명이 주어질 뿐이다. 勿論 여기에는 Sidney Hook 가 그의 著書 Marx and Marxists 에서 指摘한대로 共產革命戰略上的 暴力革命論의 根柢가 되고 있다는 點에도 一理가 있다고 본다. 「勝利하는 푸로레타리아는 政權을 획득할 때까지는 勞動階級 사이에서 까지도 少数派에 끄치는 것」이어서 全人口의 共產化를 위해서 國家와 黨이 소멸하는 그때까지는 共產黨이 絶對的으로 푸로레타리아를 支配하는, 나아가서는 國家를 支配하는 푸로레타리아트 獨裁가 實施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된다.

레닌 스스로 「푸로레타리아 獨裁가 實施되고 있는 소비에트聯邦內에서 重要的 政治的 혹은 組織上的 문제가 黨의 指導없이……… 決定되는 일이 없다」고 밝혀 푸로레타리아 獨裁가 푸로레타리아에 대한 黨의 獨裁의 概念으로 되어서는 黨指導部의 獨裁가 惹起되고 나아가 社會 전반에 대한 全体主義的 支配까지 되어 처음 마르크스·엔겔스의 民主主義的 概念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 되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겠다.

물론 이러한 레닌의 主張이 共產主義의 國際主義的 性格을 根本的으로 바꿀려는 意圖에서였던 것은 아니다. 「國際資本主義와의 鬪爭을 위하여 勞動組織을 하나의 國際的 勞動者軍으로 結合」(註7)

해야 하며, 労働者の 解放闘争도 「國際資本에 대한 共同闘争」(註8)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프롤레타리아의 國際的 運動의 利益만이…… 唯一하고도 可能的」(註9) 社会民主主義者の 態度라는 共產主義運動의 國際主義的 基本性格이라는 一貫된 論理가 견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 現實적으로 倣存하는 共產國家의 存在 및 그 獨裁性에 대한 合法化 企圖로서 提起되었다는 데 意味가 있다. 이러한 國際主義의 理論과 國家主義的 現實性의 調和는 특히 一次大戰이 끝난 1919年代 以後의 民族主義 問題와 깊은 關聯을 맺게 된다. 1919年 3월에 組織된 第三 國際內셔널, 즉 코민테른은 民族解放運動을 크게 重要視하였는 바, 1920年의 第2回 大會에서는 레닌 自身이 起草한 것으로 알려진 「民族 및 植民地 問題 提제」가 採択되었고 그해 9월에 바그다드에 東方民族大會가 開催되기도 하였다. 모스크에 1921年의 共產主義 東方労働者大學 設立(쿠트베), 1922年에 極東労働者 民族大會 開催등의 奔走한 民族主義에 대한 움직임은 이러한 當時의 事情을 잘 말하여 준다. 1914年頃의 모든 民族的 要求……를 階級闘争의 観点에서 評價한다」(註10)는 民族主義에 대한 消極的 배려는, 1920年代에 들어서서는 보다 重要的 解決課題로 提起되었고, 이러한 民族主義에 관련된 問題가 러시아의 슬라비즘 民族主義와의 마찰로까지 展開될 수 있었던 1930年代를 前後해서는 어떤 形態로든지 특히 이러한 方向設定의 必要性은 두가지 理由, 즉 民族國家에 대한 共產革命戰略上에서, 또 共產主義運動에



대한 소련中心体制의 도전이라는 점에서 当面課題로 提起되었고 그 解決의 실마리는 주로 스탈린에 의하여 풀려져 갔다.

### 第3節 스탈린의 民族主義理論

스탈린의 民族主義에 관한 理論은 1913년에 刊行된 「마르크스主義와 民族問題」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스탈린은 民族의 概念自体부터 階級에 관련하여 說明, 民族의 共通性은 階級鬭爭에 從屬되는 것이며, 資本主義 國家에 있어서도 經濟的 유대가 民族的 區別을 초월할 수가 있다고 보아, 階級上으로 分斷된 國家의 경우 共通되고 統一된 民族이 될 수 없는 論理로 展開하였다.

이러한 論旨에서 國家에 대한 종래의 說明에서처럼 民族도 歷史的 產物이며 封建制度에서 資本主義로 發展하는 단계에서 나타나고 資本主義의 붕괴와 더불어 消滅할 것으로 그는 断定하였다.

따라서 民族運動은 本質적으로 부르주아적이며 결국은 階級에 종속되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立場에 歸着케 되는 論理가 되었다.

民族에 대한 이러한 스탈린의 國際主義的 立場은 同時에 實質上으로는 전혀 相反되는 다른 主張을 內包하고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다음 2가지, 즉 一國社會主義理論의 展開와 民族自決權의 主張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 같다.

一國社會主義 理論의 발단은 共產主義 運動이 世界到處에서 일어나 名實共히 國際主義的 性格을 띠고 展開되어야 할 일이나

그렇지 못할 것이고 러시아 하나만이 共産國家가 된 1917年 革命後의 當時 狀況을 두고 惹起되었다. 1917年 當時 소련의 国内事情은 經濟的, 社会的 혼란의 極에 達하였으며 새로 들어선 쏘비에트政權은 어떠한 方法에서든지 이러한 難國의 克服이 當面課題로 提起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당장은 「新經濟政策 (New Economic Policy)」으로 모면하였으나,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社會로 넘어가는 過程上에 여러가지 複雜한 問題가 現實的으로 대두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當時 소련의 경우에서 처럼, 어느 한 나라에서만 無產階級 國家가 建設되었을 때의 共産革命展開方法上의 問題였다. 勿論 이러한 問題는 30여년 前에 古人이 된 마르크스에 의해서는 아무런 暗示도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트로츠키 (Leon Trotsky) 中心의 유럽諸國의 革命도 同時에 遂行되어야만 經濟的으로 뒤떨어진 러시아의 革命이 成功할 수 있다는 永久革命論이 提起되었고, 이에 對한 反論으로서 스탈린 中心의 一國社會主義理論이 登場한 正面 對立하기에 이른 것이다. 스탈린은 유럽의 共産革命이 同時에 遂行되는 것도 좋으나 당장의 狀況으로는 러시아 自體의 力量을 增大시킬 것이 艱難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 萬國의 勞動者들이 러시아를 全폭적으로 支持하느냐에 달린 問題라고 主張하였다. 다시 말하면 一國社會主義 可能論은 當時 러시아의 狀況에 비추어 內的 經濟回復을 企圖한 長期戰略으로 世界革命을 主導할 힘을 기르자는 것이 그 基本趣旨였다. 이 主張이 1925年 第14回 全党大會에서 圧倒的 多數의 支持를 얻어내기에 이르렀고

1928年 以後에 시작된 數次의 社會主義 五個年計劃에 있어서는 經濟建設事業의 理論的 基礎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趣旨의 一國社會主義 理論이 共產主義革命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國家權威體制의 維持가 한층 더 必要하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러한 國家權威가 보다 더 強化되어야 한다는 方向으로 誘導되었다.

1936年 소비엘 憲法草案에 관한 報告書에서 「소련에서는 이제 ..... 社會主義 社會가 實現」되었음을 선언(註11) 하였고, 1939年 3月 소련 共產黨 第18次大會의 報告書에서는 이를 다시 確認하였는 바, 소련에는 부르주아의 搾取階級이 더 이상 存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제 프롤레타리아 獨裁와 國家의 消滅問題가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소련이 敵意있는 國家들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共產革命은 一國社會主義에 바탕을 두어 國家와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繼續되어야 하고 強化되어야 한다. (註12)는 說明으로 合理化된 것이다.

스타린의 民族自決權의 경우, 처음부터 當時 自由世界의 一般的 民族主義의 意味와는 매우 다른 角度에서 行해졌다. 民族運動에 더 以上 無關心할 수 없었던 當時 소련의 立場에서 傳統的 共產主義論에 모순되지 않고도 이를 무마시킬 수 있는 理論의 定立은 매우 어려운 課題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를 감당해냈다. 그는 民族主義를 「被抑壓民族의 民族主義와 抑壓民族의 民族主義로 区分」(註13) 한 것이다. 즉 被抑壓民族의 프롤레타리아는 支配民族의 프롤레타리아 階級과 結合해서 부르주아지에

대한 階級鬭爭을 展開할 것이기 때문에, 被抑壓民族에 대해서는 自主, 獨立, 平等 및 民族內政에 대한 不干涉을 主張하는 民族自決主義原則을 適用해야 한다는 立場이 된 것이다.

「푸로레타리아 階級の 連帶原則을 어긋나게 한」 「大러시아主義者」로서 스탈린을 꾸짖은 레닌의 表現에서도 들어나듯이, 스탈린은 世界共產革命의 遂行을 슬라브人中心으로 이끌어야 할 前提下에 러시아 內부의 少數民族에 대한 彈壓의 방편과 後進地域의 共產化 圖模라는 二重的 效果를 이룩한 民族主義의 類型的 区分이라는 差想을 通하여 達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스탈린의 民族主義理論에 民族主義 固有의 實地를 다소나마 融通성 있게 認定한 側面도 없지 않은 것 같다. 1950년에 發表된 그의 論文「言語學體系에 있어서의 마르크시즘에 관하여」에 따르면, 民族이란 資本主義가 形成되면서 나타났고 資本主義가 붕괴되면서 沒落해야 한다는 종래의 主張과는 거리가 있는, 民族形成 以前에 民族體의 實存을 認定하고 있는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本質적으로 스탈린이 이나마의 民族自決原則을 容認하지 않을 수 없었던 裏面에는 外的 与件에 따른 國際狀況의 영향이 적지 않다.

코민포름이 創設된 1917년부터 共產陣營內에 소련中心의 共產主義 運動에 反對하는 共產陣營內의 民族主義勢力의 強力한 要求가 있었고, 1948년에 들어서서는 이것이 일층 노골화되어 유고가 코민포름에서 脫退하는가 하면, 폴란드의 反蘇的 國民抗爭, 東獨과 헝가리의 反撥이 惹起되었고, 1955년에 와서는 바르샤바條約 八條에서

「제약국의 獨立과 主權의 相互尊重 및 內政不干涉」을 規定하기에 이르른 長久한 歴史的 背景이 前提된 때문이다.

여기서의 民族自決主義의 原則이란 프롤레타리아의 自決權을 意味하며 그것도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手段이 되어 社會主義의 諸原則에 適用할 것 以外가 아니라는데는 再論의 餘지가 없겠다.

무엇 보다도 共產主義에 있어 民族主義 問題가 理論的 論爭으로 보다 公開化된 것은, 1955年 반둥會議 以後의 中.蘇의 理念紛爭에서 였다.

中.蘇間의 論爭은 長久한 歴史的, 共產革命戰略上, 그리고 國家利益의 現實上의 多樣한 方向에서 展開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民族問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各 理論的 相衡이 한결 이러한 中.蘇間의 對立過程에서 뚜렷해 진다는 點에서 興味롭다. 毛沢東이 民族解放運動을 強調하여 表現한 「中間地帶論」에 관한 論爭의 경우에도 그렇다.

主敵인 「美帝國主義」에 대하여 對決하고 있는 것이 소련中心의 社會主義陣營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中間地帶 人民」이라는 毛沢東의 主張에 대한 수슬로프報告에 나타난 소련의 「社會主義體制가 人類社會 發展의 決定的 要因으로 轉化되고 있음」을 強調하여 소련中心의 世界共產化戰略의 순조로움을 내세운 것이 이다. 1964年 7月 14日字의 人民日報를 通하여 밝힌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의 是非도 例外가 아니다.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批判하면 서 소련은 이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國家形態에서 벗어나 이미

階級억압이 없는 「全人民의 國家」形態로 轉化되고 있다는 主張에 대하여, 中共은 「人類史上 最後의 國家形態」로서의 푸를레타리아 國家形態는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로 移行하는 過度단계의 國家形態」로서 認定하면서 소련의 「全人民國家」를 「國家란 모두 특정한 階級の 獨裁國家인 限, 超階級的이 될 수 없다고 공박한 것이다. 아무튼 中.蘇間의 對立相에 서로를 비방한 內容에는 이러한 民族이나 國家問題가 흔히 指摘되고 있는 것이다.

1964年 2月 4日에 發表된 中共의 「七評」에서의 對蘇攻讟에서도 「大國의 소비니즘과 民族利己主義의 政策」을 指向하는 國家로 소련을 몰아쳤고 이에 對應하는 소련의 경우도 수슬로프가 黨中央委員會에서 行한 「수슬로프報告書」(1963年 7月 14日 소련 共產黨 公開狀에서 再確認)에서 中共을 「少부르좌的 民族主義的……… 偏向性」 또는 「露骨的인 民族主義的 大國主義的인 野心」이라고 공박한 경우등은 그 좋은 例라 할 것이다. 이러한 論爭이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는 노골적인 國家利益 追求의 양상이 되어 第3世界의 民族主義에 대한 競爭的 呼訴로 까지 치달게 되어서는 이제 다시 수습될 수 없는 共產主義의 國際主義에 致命打가 된 것이다.

이렇듯 正反對의 意味까지도 同時에 담을 수 있는 스탈린의 民族主義에 대한 修辭的 說明은, 急增하는 民族主義勢力의 要求에 곧잘 迎습도 하면서 또한 「바르샤와條約의 原則이 社會主義 共同體의 存立에 관한 重大한 利害關係에 優先되지 못한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 ( Breznev Doctrine ) 에 따른 1968年 8月の 체코 侵攻이 거침없이 行使될 理論的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事實上 스탈린이 죽은 後 후루시초프나 브레즈네프의 여러가지 努力에도 불구하고 民族主義 문제와 관련하여 共產陣營 内部的 分裂이 더욱 심해진 것이 國家利益이나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主導權 問題와도 無關한 것이 아니나, 民族主義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 新生國과의 關係에서 빚어진 共產主義 理論 自体의 問題에 적잖게 영향된 것임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民族問題를 國家觀에 나타난 理論 面을 中心으로 概括하였다.

國際主義的 性格을 根本으로 했던 마르크스 . 엥겔스의 主張이 레닌에 와서는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이 提示되면서 19世紀 初葉의 民族主義運動의 一般的인 展開方向에도 便乘하여 國家權威의 增大를 촉발시켰고, 이는 다시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 主張에 의하여 補強되었다. 소련만이 唯一한 共產主義國家였던 1920年代 當時의 狀況에서 世界의 모든 프롤레타리아가 러시아共產國家를 支援함으로써 國際共產主義運動이 成功될 수 있다는 一國社會主義論의 立場은 共產主義革命에서의 소련主導力の 견고화와 國家体制의 強化를 結果 하였고, 이러한 結果의 國家權威強化는 그 自体가 大러시아主義라는 슬라브人的 民族主義의 觀点에서 크게 問題視되었으며 이 問題가 中 . 蘇間의 論争에서는 中共의 對蘇攻擊의 한 武器로써 活用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國家權威가 增大됨에 따라 소련의 餘他 共產國家에 대한 指導力은 점차 強化되어갔고 同時에 소련의 指導力이 強化되는 만큼 民族國家로서의 餘他 共產諸國의 反撥도 커져갔다.

특히 第1次 世界大戰이 끝난 後부터 두드러지기 始作한 이러한 傾向에 대하여 소련은 共產革命 宗主國의 位置를 固守하기 위해서도 新生 民族主義運動을 共產主義理論에 迎合시킬 必要性이 切感되었고, 그 具體的 表現이 스탈린의 民族自決主義原則主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 云謂되는 民族自決은 그 自体가 政略的 意味가 內包된 것이러니와 根本적으로 共產主義의 國際主義的 性格과 背馳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러한 難境을 民族主義를 性格上 区分함으로써 克服하였다.

民族主義를 抑壓民族의 民族主義와 被抑壓民族의 民族主義로 区分한 것이다. 被抑壓民族의 民族主義의 경우에는 그 民族解放을 支援하여야 할 것임에 反하여, 抑壓民族의 民族主義의 경우에는 그 資本主義的, 帝國主義的 性格 때문에 이를 저지시켜야 할 것이 되며, 民族主義 運動에는 그 對象인 民族主義의 性格規定에 따라 抑壓도 支援도 行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러한 스탈린의 民族主義 理論이 그後 소련 民族主義政策의 바탕을 이루고 있거니와 여기에 1955年以後 中.蘇의 表面的 對決에 直面하면서 課題로 提起되었다. 다시 말하면 中共이나 소련 모두가 實質적으로 新生 民族主義運動에 支援를 아끼지 않는다는 基本立場에는 같으면서도, 共產主義理論이라는 名分上으로 共產主義 元來의 國際主義的 性格을



내세우면서 격들을 벌린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에 있어 民族主義 問題는 主觀的 立場에 따라 달리 展開될 수 있는 理論的 素地가 각가지 方式으로 마련된 셈이 된다고 하겠다. 크게는 民族主義 自体를 否認한 철저한 國際主義的 性格만이 共產主義의 正統的 立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게는 어느 한 強大國의 指導下에 묵묵히 따르거나 또는 特定狀況 속에서 独自の 民族主義의 正統性에 벗어나지 않은 셈이 되는 예문이다.

## 第 2 章 共產諸國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의 實際

### 第 1 節 蘇 聯

古代 러시아의 啓蒙的 世界主義에서 러시아民族主義가 超過된 것은, 西歐社會와 같이 仏蘭西革命과 특히 1812年의 「나폴레옹」 侵略에 대한 祖國防衛戰을 契機로 비롯되었다. 그 以前에 있어서의 러시아人들은 그들 民族이 「全世界의 모든 國民을 統治시킬 使命」을 갖고 있다면서 소위 民族的 使命感을 狂信的으로 내세우고 있었으나, 역시 그들은 落後된 典型的인 野蠻族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있어서의 그들은 「모스크」를 「神의 恩察에 의하여 保護되어 正敎派의 信仰과 崇敬의 標的으로서 神에 의하여 選拔된 都市」라고 狂信하고 있었으나, 實際에 있어서의 社會相은 無知와 愚昧 그리고 無秩序한 狀態로 放置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後 1917年, 革命直後에 있어서의 共產主義政權은 「맑스」的인 見解에 立脚한 소위 「諸民族의 權利宣言」을 發表함으로써 처음으로 民族問題에 대하여 關心을 갖고 이에 對処하기 始作하였다. 이 權利宣言에서 그들은 첫째로 러시아諸民族의 平等과 自立 둘째로 分離와 獨立國 建設의 權利를 包含한 러시아諸民族의 自由로운 自決權, 세째로 모든 民族的 및 民族, 言敎的 特撤과 制約의 撤廢 그리고 네째로 領土內에 居住하는 少數民族 및

諸人種의 自由들은 發展을 約束하였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多民族 國家로서의 그들이 안고 있는 民族問題는 1921年 第14次 共産黨 大會에서 共産黨의 政策으로서 採択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共産黨에 의하여 採択된 實際 內容에 의하면 民族問題는 植民地를 解放 시키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看做될 따름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어떤 境遇에 있어서도 民族自決權은 認定하지 않고 다만 民族分離 權만을 認定하는데 그쳤으며, 階級為主이기 때문에 民族은 第2次的인 意義밖에 賦與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民族을 重要視하는 것은 「社會改良主義」로 몰아 非難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蘇聯共産政權은 러시아革命 以來로 民族主義의 基本理念을 認定치 않고 있었으며, 다만 그것을 國內外的인 諸問題를 解決하는 하나의 方便으로 採用하였을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民族主義를 共産主義와 적어도 一致된 것으로 把握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理由야 어떻든 「맑스」나 「레닌」의 共産主義는 國內外的으로 民族主義를 利用하고, 또한 그것에 의하여 強化되어 온 것만은 否認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물론 「맑스」는 民族主義者는 아니었다. 그는 오직 大國이 民族에 基礎를 둔 少國보다 나은 것으로 確信하고 있었으며, 또한 「民族性의 利己主義」를 批判하고 國際主義를 強調하면서 民族問題를 오직 被壓迫民族의 解放鬪爭의 一環으로 看做하였다.

그러나 「맑스」가 죽은 後, 그의 追從者들은 民族的 愛國心과 民族主義를 옹호함으로써 大衆의 支持를 獲得하려고 試圖하였던

것은 事實이었다.

한편 「레닌」은 러시아로 부터 亡命하여 左派「맑스」主義者로 活動할 當時에 있어서도 民族主義에 대해서는 약간의 關心을 表明한데 不過하였다. 그도 역시 植民地 被壓迫民族의 民族自決權을 強調하는 한편 러시아 内部의 民族自決權의 承認도 主張한 바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手段일 뿐, 民族主義에 대한 尊重이나 弱少國의 永統的 獨立에 立脚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蘇聯 内部와 共產國 内部의 民族이나 國家가 自決을 強調하거나 離脫을 하려고 試圖할 때 그에 対応하여 慘酷하게 彈壓하여 沮止시킨 前歷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切迫한 經濟問題를 解決하고 民族的인 内外의 反對에 對處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資本主義나 혹은 民族主義와 妥協한 것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그가 組織하여 「스탈린」에게 맡겼던 소위 「民族問題人民委員」이란 것이 그 代表的인 事例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맑스」나 「레닌」에 反하여 「졸지아」民族에 屬해 있던 「스탈린」은 共產主義에 대한 그의 信仰과 러시아內의 非러시아民族을 連結시킴으로써 보다 積極的으로 民族主義에 對處하였다. 그는 「레닌」의 領導下에서 「民族問題人民委員」으로서 1922年의 憲法으로 「쏘아」의 中央集權的帝國에서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聯邦」에로의 轉換에 크게 作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同 聯邦은 처음으로 各 共和國의 特定民族(大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白러시아, 「졸지아」 및 「알메니아」)으로

構成되었다. 그 後 「스탈린」은 國家統制權을 「레닌」으로 부터 물려받자 그는 아시아·러시아에 있는 後進 民族들을 위한 共和國을 聯邦內에 新設함으로써 自治權을 確立하였다. 이와 같은 「스탈린」의 諸民族에 대한 配慮는 蘇聯內 全域에 걸쳐 「모스크바」의 獨裁政權에 대하여 大衆의 忠誠을 促進시키도록 誘導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은 "러시아民族主義의 權化"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에 執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民族否定的인 態度를 取함으로써 民族問題에 대한 兩面性을 內包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民族運動을 「브르조아」的인 것으로 把握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共產革命에 利用하려고 한 點에 있어서는 例外가 아니었다. 그런 點에서 그도 眞正한 民族主義는 敵對派하거나 抑壓하였고, 反帝國主義,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프롤레타리아」 民族自決, 帝政러시아 領土의 再征服, 國際的 共產化의 企圖 等 強한 러시아的 民族主義를 強調함으로써 러시아의 大國主義 또는 새로운 共產帝國主義를 標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被壓迫民族의 解放이라는 것도 結局 自己들 陣營內에서 自己들의 主導에 의한 條件下에서의 支援을 適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純粹한 民族 獨立의 支援과는 區別되어야 할 것이다. 그 좋은 例로서 1960年 11月,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國際共產黨大會에서 蘇聯은 新生獨立 民族主義政權을 共產化하기 위한 過渡期的 政府形態의 理論的 「모델」로서 民族民主主義國家 (National democratic

state), 그리고 이를 위한 戰略戰術의 綱領으로서 民族民主主義 戰線 (National democratic front : 統一戰線) 을 提示한 것을 指摘할 수 있겠다.

原來 「블세비키」는 敎權과 더불어 東洋 (Orient) 의 解放에 대한 強調가 絶頂에 이르렀으며, 그 後 數年內에 東洋의 意味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全植民地를 擴大 包括하게 되었는데, 1920年代에는 이들 諸國家의 3段階的인 解放을 그들은 構想하였다. 3段階革命의 第1段階는 植民地 勢力의 排除며, 第2段階는 植民地勢力에 代置된 새로운 民族主義政權 (이 政權은 上層階級 및 中產階級을 主導勢力으로 하며, 過渡的으로 共産黨의 協力이 要望되었다) 의 破壞며, 그리고 第3段階는 그 破壞에 따른 共産政權의 樹立이었다. 第2次大戰 終了 後 植民主義의 退潮와 더불어 대체로 第1段階의 目標은 達成된 셈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設定한 第2段階의 目標은 後進地域의 新生民族主義 政權이 社會主義를 標榜했으나, 共産主義政權에 이르는 過渡期的인 政權이 願하는 國家는 하나도 없었다. 蘇聯은 이러한 失敗의 要因이 強力한 勞動者階級의 欠如에 있다고 보고, 1955年以來 産業化를 口號로 하여 後進地域의 經濟的, 技術的 援助, 그리고 심지어는 軍事援助 (例: 이집트의 경우) 의 提供에 迫車를 加해 왔던 것이다.

「코민테른」創設以來로 民族解放에 관한 問題는 國際共産黨에서 많이 論議되어 온 主要問題로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中, 蘇對立의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하나로 되어 있다. 1920年 「코민테른」 第2次大會에서 「레닌」과 印度共産党的 指導者였던 「로이」(Roy) 사이에 民族解放運動에 관한 論爭이 벌어졌다. 「레닌」은 “共産党은 後進國에 있어서 「브르조아」 民主主義運動을 支援해야 하며 ……… 이 들 運動이 真正하게 革命的인 境遇에만 解放運動을 支援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대하여 「로이」는 公式적으로는 「레닌」의 主張에 反論을 提起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強硬路線을 堅持하고 있었다. 「로이」는 「브르조아」, 民族主義運動보다도 가장 革命的인 政党 및 集團의 運動을 支援해야 하며, ……… 殖民地革命의 初段階에 있어서 그것이 設使(共産主義革命이 아니더라도 革命의 主導權은 共産党前衛가 처음부터 掌握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레닌」의 이와 같은 持論은 後進國에서는 直接的으로 「프롤레타리아」革命으로 社會主義 革命段階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中間에 過渡的인 橋梁段階가 必要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第2次大戰 後에 後進國에 있어서 革命條件의 成熟은 물론 「레닌」의 前提인, 反帝國主義鬪爭에 있어서의 共産党和 民族主義者와의 同盟도 또한 實現되지 못하였다. 原來 戰後에 있어서의 蘇聯은 共産党 以外는 認定치 않음으로써 民族主義에 대해서도 사뭇 否認的인 立場이었다. 또한 當時에는 「레닌」은 資本主義 陣營에 의한 包圍(Capitalist encirclement)의 綱領에 사로잡혀 있었고, 「스탈린」은 힘의 一時的 均衡을 前提로 한 2陣營

( two camps )의 綱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戰後에 漸次的으로 中立主義勢力이 國際政治上에서 增大하고, 또한 美·蘇間에 核武器를 中心으로 하는 恐怖의 均衡 ( Balance of terror )이 維持되어 兩大陣營間에 全面 核戰爭의 可能性이 減少되자 「 흐루시·초프 」時代의 蘇聯은 中立主義를 점차 國際政治上의 現實的인 勢力으로 認定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的 條件의 變化에 対応하는 對後進國路線으로서 登場한 것이 民族民主主義國家 또는 民族民主主義戰線이었다. 이러한 事實은 蘇聯으로서는 커다란 政策轉換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蘇聯은 脆弱한 地方 共産黨보다도 民族主義政權을 支援하고 「 이데올로기 」나 政治體制와는 關係없이 經濟技術 그리고 軍事援助까지 提供하게 되었다. 따라서 蘇聯이 이와 같은 民族民主主義國家를 定義함에 있어서는 非同盟·反「 유럽 」의 原則, 西方側의 經濟的 影響力の 極少化, 共産黨에 대한 寬容 및 自主的인 國家經濟의 發展이라는 4個要素를 그 基準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政策轉換은 第一 먼저 中共의 強한 反撥을 불러일으킨 結果가 되었으나, 오히려 蘇聯은 특히 對外援助政策에 拍車을 加하여 1960年代에는 그 重點이 人口過剩의 「 아시아·아프리카 」의 非共産國家에로 轉換하여 계속 擴大하였다. 여기에 있어서도 中共과 蘇聯은 各己 그들의 影響力 增大를 위하여 競爭하여 왔다. 그러나 蘇聯은 反「 유럽 」的, 反植民主義的 鬭爭이 民族主義의 主要 政治的 「 에너지 」로 되어 있는 이들 新生國家들에 대한 援助를



階級鬭爭의 하나의 方法으로 보고 있었다. 反「유럽」의 感情을 利用하려는 데 蘇聯의 政治的 動機가 있었다. 이리하여 蘇聯은 「쿠바」를 비롯하여 「가나」, 「기니」, 그리고 「말리」를 가리켜 民族民主主義가 胎動하고 있다고 強調한 것이다. 그 中에서도 蘇聯이 특히 關心을 갖고 強調한 國家는 「쿠바」의 境遇이다. 그러나 그밖에 이들 많은 國家들에는 強力한 「포롤레타리아」와 民族「브르조아」를 다같이 欠如하고 있으며, 반드시 共產黨의 勢力이 支配的인 것만은 아니다. 이들 國家의 指導者가 아무리 社會主義를 標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願하는 것은 1次的으로 經濟發展이며, 嚴格한 意味에서의 「맑스」主義 「이데올로기」를 追求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世紀에 들어와서 특히 第2次大戰後에 많은 植民地가 獨立하여 主權을 가진 民族國家가 되었으나, 實際로는 아직도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으로 從屬되어 있는 國家도 있고, 植民地로 남아 있는 國家도 있다.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蘇聯 共產黨의 綱領은 各 民族國家에 대해서는 兄弟的인 同盟을 結成하고 民族 獨立의 獲得과 強化를 指向하는 諸民族과 植民地體制의 完全한 打破를 指向하는 全 民族에 대해서는 援助를 提供하는 것을 目標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各 民族國家는 「客觀的」으로는 主로 “進歩的, 革命的, 反帝國主義的 勢力”이라고 생각되고, 被壓迫民族의 民族主義는 抑壓에 反對하는 一般民主主義的 內容을 가진다고 評價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서는 広範한 愛國的 民主勢力”의

統一의 可能性이었고 또 그것이 必要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如前히 弱少國家와 被壓迫民族에 呼訴하고 있는데, "從屬", "兄弟的", "進步的, 革命的, 反帝國主義的", "愛國的" 등의 用語에도 問題가 있으며, "同盟" 과 "援助" 의 眞實性도 蘇聯의 이 때까지의 衛星國家에 대한 緯度로 보아 疑問視된다.

蘇聯은 1928 年에 보다 民主的이고 人間爲主의 社會主義路線을 取하려고 한 「체코」에 대해서 武力으로 侵攻하였으며, 「체코」의 狀況에 맞는 社會主義路線을 取하려고 한 共產黨指導者들을 除去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폴란드」나 「헝가리」에 대한 抑壓 역시 蘇聯의 方式과 統制를 어떻게라도 強要하려는 意圖를 보여준 것이며, 다만 中共과 「유고」에 대해서만 그 強制力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말할 것 없이 蘇聯은 共產國家가 自己들 陣營에 加担할 것을 要求할 뿐만 아니라 蘇聯의 方式에 따르고 그에 從屬할 것을 強要하며, 各國의 歷史的 發展段階, "進步的"인 民主的 傳統 그리고 慣習과 文化와 理念에 따라 그에 適合한 社會主義을 建設하려는 人民의 要求에도 斷乎히 反對했다. 蘇聯이 要求하는 方式이란 中央集權的인 共產黨 支配方式만이 아니라 重工業爲主의 工業化 方式과 모든 主要 工業品 生産에 있어서 1人當 生産業績이 短時日內에 先進資本主義國家에 이르거나 또는 그에 앞서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政治的 隸屬만이 아니라 經濟的인 隸屬도 強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코」의 境遇 重工業爲主로 인한

農業, 經工業, 消費製品과 食料品 生産, 輸送, 住宅建築 그리고 貿易  
等 다른 모든 分野의 發展을 犧牲시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生産의 非能率性이 增加하고, 生産技術의 現代化가 이루어지지 못했  
으며, 過去에 評價를 받던 「체코」의 輸出品의 質은 低下됨과  
同時에 其他 市場의 喪失과 貿易의 低調 그리고 人民의 生活에  
많은 支障을 가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共產圈內에서도 各國의 相  
異한 狀況과 經濟 向上에 대한 一般國民의 要求는 蘇聯式 方式의  
劃一的인 強要를 漸次 어렵게 할 것이고, 蘇聯 자체도 經濟方式의  
緩和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다. 實際로 各 國家別 社會主義  
와 蘇聯 經濟의 改革의 可能性은 豫見되고 있으나, 蘇聯의 大國主  
義와 새로운 帝國主義 그리고 「메시아」의 民族主義는 (Messianic Nat-  
ionalism)는 계속해서 어떠한 形態로든지 執拗하게 支配를 追求 할  
것이다. 물론 蘇聯은 眞正한 「메시아」 (Messiah)  
는 되지 못하였지만 一定한 「이데올로기」와 教養을 通해서  
支配와 征服을 擴大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支配와 征服의  
背後에는 圧倒的인 武力이 있고, 그 「이데올로기」에는 資本主義의  
弱點을 指摘하는 힘도 있으며, 折一的으로 外部援助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弱少國이나 被壓迫民族에게는 하나의 救援要求처가  
될 수 있다는 點을 잘 活用하고 있다.

한편 蘇聯은 世界 여러 곳에서 分斷과 民族分裂, 民族間의 相殘  
이 일어난데 대하여 一方을 支援함으로써 問題의 解決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같은 紛爭에 있어서 蘇聯은 그 勢力圈의 喪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勢力이 縮少되거나 不確實하게 되는 데 대해서도 反對하  
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要컨대 蘇聯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특히 「스탈린」에 이르러  
共産國際主義라는 것이 러시아 民族主義에 利用되거나 그것에 立脚  
한 것이 되었으며, 그는 国内에서는 共産主義의 強化와 함께 民族  
主義를 鼓吹하였고, 民族主義의 鼓吹를 통하여 共産主義를 強化시켰  
던 것도 事實이었다. 특히 그는 第2次大戰에 있어서는 民族主義  
를 最大限으로 利用하였다. 그러나 그는 물론 蘇聯 以外の 다른  
國家나 地域의 民族主義는 無視하거나 혹은 抑壓했던 것이다.

國家別 共産主義의 立場에서는 共産主義世界를 成就하는 唯一의  
正確한 方法은 各國에서 個別的으로 共産主義를 樹立하는 것이라고  
主張할 것이나, 이것은 「소비에트.러시아」를 母國으로 해서 그  
周邇에서의 共産主義의 軌道라는 「스탈린」의 主張에 挑戰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共産國家들이 過去의 民族主義를 再強調하려는  
決意을 보이게 되자 「크레믈린」에서도 不得已 漸次로 그 立場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모스크바」는 多少 讓步하게  
되었고, 이러한 共産主義的 民族主義 또는 共産民族主義 ( Communist  
nationalism )는 앞으로 長期間의 勢力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第 2 節 中 共

아시아에 있어서의 民族主義는 「유럽」의 植民地支配의 重要한 産物이었다. 「유럽」의 아시아 進出은 1511年 「폴투칼」인 「마라카」(Malacca)의 征服에서 시작되어 近 4世紀半 동안이나 계속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進出期間은 다음과 같은 3個段階를 經由하였다.

먼저 第 1段階는 18世紀까지로써 이 期間은 商業이나 布教를 위한 時期이며, 第 2段階는 19世紀부터 시작되는 政治的, 領土的 擴張의 段階로서 19世紀末까지 계속되었다. 이 第 2段階에서는 이미 「유럽」支配에 대한 아시아인의 覺醒을 促求했으며, 「유럽」의 政治的, 經濟的 支配에 對抗하여 鬪爭케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鬪爭을 通하여 第 3段階가 始作되었다.

이와 같은 段階的인 支配의 結果, 1939年에 이르기 까지 아시아는 크 老大한 地域에 不過 4個의 主權國家를 갖는데 不過하였다. 이들 4個 國家 中の 2個인 「아프가니스탄」과 「타이」는 事實上 強大國間의 緩衝地帶였고, 中國은 外部 侵略에 대하여 強力한 統一性을 摸索했으며, 다만 日本만이 真正한 意味에서의 獨立國이라 할 수 있을 程度였다.

이러한 現象에 의한 植民地가 준 一般的인 文化的 衝擊은 「유럽」의 價值 宗教, 理念, 哲學 및 道德의 普及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結果的으로 外國支配에 대한 民族主義

鬭爭에 있어서 重大한 役割을 하게 했던 것이다.

이 過程에서 특히 民族主義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外來文化에 대한 抵抗은 自民族의 優越性을 立證하기 위한 努力으로서 土着的 價值 ( Native values )를 復活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는 中華思想을 中心으로한 大國主義思想과 獨善的인 思考方式을 갖고 있었던 中國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었다.

要컨대 「유럽」의 植民地支配가 아시아에 준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政治的 여러가지 衝動은 참으로 至大한 것이었으며, 아시아의 民族主義는 이러한 植民支配의 必然的인 所産이 없다.

그리하여 아시아의 民族主義가 外國人의 支配에 對한 抵抗으로서 出現했다는 點에서 M. 볼 ( M. Ball )이 指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3개의 反抗的인 民族的 執權을 內包하고 있었다. 즉 첫째는 民族自決과 獨立의 爭取를 위한 外國人支配에 對한 政治的 反抗이며, 둘째는 貧困으로 부터의 解脫을 위한 社會的, 經濟的 反抗이고, 셋째는 「유럽」人 즉 白色人種에 對한 有色人種의 人種的 反抗이 곧 그것이었다. 植民地 民族主義가 단순히 獨立的인 國民國家의 建設을 위한 運動 보다도 「유럽」의 支配에 對한 反「유럽」的, 反帝國主義的 被壓迫民族의 解放을 위한 鬭爭으로서 表現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아시아 民族主義의 一般的인 潮流에서 볼 때, 특히 中國은 民族主義를 激動的 共產主義를 위한 하나의 強力한

道具로 利用되었던 것이 하나의 特徵으로 指摘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國內的으로는 民族主義를 共產主義 運動의 하나의 手段으로 利用하고, 對外的으로는 아시아의 反「유럽」的. 反帝國主義的 性向을 제빨리 利用하여 對外進出과 活動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다.

원래 中國은 漢民族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非漢民族은 全 人口의 6%에 不過하였으나, 이들 非漢民族들은 傳統的으로 滿洲政府, 國民黨政府 또는 共產黨政府와 같은 中央政府의 統制에 不服하고 또 그곳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邊境地域에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中共政權으로 부터 特別한 關心을 갖게 했었다.

오늘날 이들 邊境地帶는 定着 可能地帶로서 그 重要性이 높아지고 있다.

北京政權은 그들의 希望이 「民族大家族體」의 創立이라고 主張하고 있지만, 그들의 實質的인 目標은 窮極的으로 「民族性의 融合」인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할 것이다. 端的으로 그들이 追求하려는 것은 모든 民族이 그 獨自性을 維持할 수 있는 兄弟的 關係가 아니고, 優越한 中國民族이 異民族들을 그속으로 흡수하여 結果的으로 그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父子的關係인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北京政權이 이들 少數集團들을 소위 「局部民族主義」라고 攻讐함으로써 좀 더 복잡하게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民族」이란 用語는 共產主義 語義로는 특히 中國에서는 막연하게 使用되고 있다.

西歐에서 이用語는 一般的으로 人種, 言語 및 言敎의 特色까지도 類似한 人民들이 그 歷史意識과 領土同住를 基盤으로 이루하고 있는 統一性的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에 있는 少數集團들은 이러한 基準을 充足시키는 것이 거의 없다.

北京政府가 北部에 살고 있는 中國人回敎徒들을 「局部民族主義」라고 공격하는 것은 아무런 意味도 가질 수 없으며, 그것은 그들 人民들이 言語로나 人種적으로나 「大漢族」과 同一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分離는 원래 非中國人 回敎徒 暴動에 그들이 수시로 參與함으로써 始作되었던 것으로서 그것은 지난 數世紀동안 「蒙古나 「티베트」의 政治活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어떠한 民族分離運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要컨대 이와 같은 北京政權의 對內 少數民族에 대한 諸措置는 政治的인 目的이나 그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어떻든 다른 한편 中國은 上古多數民族의 組合을 土台로 統治가 이루어졌으며, 그 國家나 民族의 觀念은 漢族의 發展과 그의 文化를 中心으로 展開되었다. 그리하여 近代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民族主義는 各 民族이 外部의 一切의 干涉과 壓迫을 排除하고 自己自身の 民族의 運命을 決定할 權利를 主張한데서 出發하게 되었다. 그리고 中國은 具體的 後進諸國地域에 있어서 弱少數民族이 列強의 侵略과 壓迫을 排除하여 民族의 自由, 獨立을 確保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中國은 阿片戰爭의 結果, 淸朝의 威信이 失墜되고, 對外的으로는 獨立이 確保되지 못한채 半殖民地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와 같은 갈망은 더욱 切實한 것이었다.

日本에서 政治維新이 일어나자 清朝는 国内的 少数民族主義를 排斥하고, 漢族을 中心으로 滿洲回苗藏의 六族을 규합하여 大民族主義(五族共和)를 樹立하여 国内外的 새로운 潮流에 對処하고 특히 列強의 壓力을 排除하려고 시도하였다. 當時에 孫文은 異民族的 支配의 排除와 外國帝國主義勢力과 結託한 專制的 支配를 排除하기 위하여, 漢族에 의한 民主共和이 政治의 實現을 위하여 努力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國은 1920年代에 들어와서 反帝反封建的 運動의 一環으로 民族主義를 利用하기 始作하였다. 共産黨 成立의 第3年제인 1923年에 廣東에서 “三全大會”를 開催하여 黨의 基本立場과 當面目標를 設定하였다. 즉 그들은 「맑스·레닌」主義에 立脚하여 階級鬭爭의 手段으로서 無産階級 獨裁政治를 實現, 私有財産制度를 實現하기 위하여 軍閥의 打倒와 國際帝國主義의 壓迫 排除, 民族 獨立, 그리고 民主主義政權과 一時的으로 聯合하여 勞動者, 農民, 小 資本階級の 聯合戰線을 結成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中國 共産黨은 國民黨을 批判, 이를 打倒하기 위하여 모든 活動을 集中하게 되었다.

當時 國民黨 民族主義의 目的은 中國民族을 對外的으로 獨立과 自由를 確保하는데 두어졌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民族主義가 갖는 目的은 對外的으로는 中國民族이 獨立과 解放을 確保하고, 對內的으로는 中國領內的 各民族이 一律的으로 平等, 協調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한편 列強의 中國에 대한 壓力이 強化된 것은 1929년에 勃發한 世界恐慌을 契機로 하여 비롯되었다. 日本도 中國에 進出하고 1931년에는 九月滿洲事變이 勃發하게 되어 中國의 反帝運動은 抗日民族統一戰線의 結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 孫文의 死亡以後에 國民黨은 紛裂이 크게 번지고 있었다.

中國共產黨은 1921年7月 上海에서 50名의 黨員으로 全國第一期大會를 開催하고 正式으로 創立되었다. 그간에 國民黨과 合作 소위 國共合作, 瑞金「소비에트」政權 樹立, 大垂遷時代 그리고 太平洋戰爭時代 等 苦難을 겪고, 1949년에 中國本土를 制壓하여 中共을 樹立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中國共產黨이 創立된 以來로 中共의 民族主義運動은 國際政治上의 立場과 國內經濟 및 社會制度의 改革에 集中되었다.

다시 말하면 中國에 있어서의 民族主義運動은 清朝末期의 沈滄興 漢運動에서 부터 辛庚革命이후의 反帝, 反植民地, 反封建의 기치아래 소위 近代國家의 樹立을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展開되었다.

그리고 中共의 民族主義運動은 抗日鬪爭과 他面 國民黨의 弱體代를 試圖함과 同時에 初期의 民族主義運動은 主로 外國勢力의 支配로 부터의 解放에 力點이 두어 졌었다. 즉 阿片戰과 太平天國 運動, 中仏戰爭, 淸日戰爭, 戊戌政變, 義和團運動, 辛庚革命, 五·四運動 五卅運動, 北伐戰爭 그리고 土地革命 等이 그 좋은 例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毛沢東은 "抗日救国宣言"을 發表하여 国内政治의 主導權을 漸次 回復할 當時에 그의 民族主義的 愛國運動이 혹시 右翼的 愛國運動으로 轉化하여 다시 國民黨의 勢力伸張에 도움이 되지 않을가 하는 點을 극히 警戒하였다. 그리하여 毛沢東은 "民族戰爭에 있어서의 中國共產黨의 地位" (1938年10月)라는 論文을 發表하여 中共의 抗日愛國運動은 어디까지나 共產主義革命의 一環이라는 點을 明確히 概念 規定하였다.

1945年 第2次世界大戰이 끝나자 中國에는 다시 國共兩黨의 勢力角逐이 表面化되었다. 蘇聯이 滿洲에 進出하고, 1946年 4月에는 처음으로 長春에서 國共兩黨軍의 成鬪行爲가 있었으며, 國共妥協의 시도도 끝에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中共軍은 滿洲와 北京의 一部를 占領하고 계속 南侵을 強化하여 1949年에는 中國本土를 掌握하게 되었다. 當時에는 國際共產勢力이 크게 成長하여 東歐에서는 「마살. 프렌」에 對抗하여 1947年 9月, 「코민테른」을 結成하고 國際共產主義運動이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1949年 10月, 政權樹立以後는 반번히 民族總鬪起大會를 展開하여 政治적으로 利用하고 있다. 그 中에서 注目될 만큼 큰 것만도 土地改革, 反革命鎮壓, 抗美援朝, 增產節約, 技術革命 三反五反, 總路線學習 그리고 台灣解放 등이 그것이다.

이 中에서 특히 民族主義的 色彩가 強한 것은 1950年 年末부터 52년에 걸쳐 일어났던 抗美援朝運動과 反革命 鎮壓運動 그리고

三反五反運動을 들 수 있겠다. 1950年 韓國戰이 勃發하자 中共은 同年 十月에 「義勇軍」을 派遣함과 同時에 「抗美援朝保家衛國運動」을 展開하였다. 이 運動의 目的은 美國의 軍事的 行動을 阻止하고 北傀를 援助하는데 있었지만, 實際 政治的인 底意는 이 運動을 通하여 民衆의 民族意識과 愛國意識에 呼訴하여 7億民衆을 組織化하고 政權基盤을 強化하여 社會主義體制를 強化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 運動의 內容을 具體적으로 愛國主義의 揭揚, 從了志願 武器獻納, 增產節約, 租稅完納, 細菌戰 反對, 愛國衛生, 思想改造, 軍事 援護 등이 中心이 되어 地域과 職場의 末端組織을 總動員하여 相互 競爭을 시키면서 徹底한 強壓運動으로 展開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50年末부터 51年後半까지에는 反革命鎮壓運動이 있었다. 中共은 韓國戰戰 輸入을 契機로 地方에 潛入한 國民黨系 特務工作 員과 中共의 彈壓政治에 不滿을 가진 民衆, 民勤政黨, 地方軍閥 土匪, 그리고 半宗教的 秘密結 등을 「民衆의 敵」으로 하여 徹底히 摘發, 살육을 敢行하였다. 이밖에도 中共은 1951년부터 52年末까지에 三反五反運動을 展開, 公務員과 軍人등의 汚職과 私營 工商業者의 贈賄, 脫稅, 不正當利行爲 등을 徹底히 彈壓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諸運動과 高崗과 饒漱石등의 肅清 등을 通하여 牛芝은 政權을 掌握한 以來, 1,500萬名을 初期 政權 樹立 過程에서 犧牲 또는 살육되었고, 3,500萬名以上の 民衆이 思想改造를 위한 強制 勞働에 服從케 措置하였다.

또한 中共은 1954年 8月, 建軍記念大會에서 宋德의 演說을 通하여 소위 台灣解放運動을 提起하였다.

이와 같은 點 등으로 考察해 볼 때 中共의 民族主義理論과 實際 政治面에 있어서의 民族主義諸施策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共의 彈壓과 暗黒의 政治속에서 民族主義運動에 따른 諸施策의 背景에는 阿片戰爭以來 外國勢力의 支配에 의한 反抗民地의 地位에서 脱却, 民衆의 榮光을 回復하기 위한 民族的 긍지를 내세웠던 것은 하나의 政治目的이었다는 側面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民族主義精神의 高揚은 특히 外國勢力에 대한 自國 立場의 自覺과 戰爭의 危機感에 의한 自己防衛意義을 基盤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中共이 數年來로 全國斷交, 韓國戰 介入에 의한 抗美援朝運動, 胡志明援助運動 그리고 台灣解放運動 등은 이 原則에 背馳된 것은 물론 民衆의 눈을 外部로 向하게 하여 民族의 團結을 劃策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利用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中共은 계속해서 民族主義運動을 利用하여 對外的 危機感을 造成하고 國民的인 團結을 摸索하기 위한 配慮를 追求하고 있다 할 것이다.

### 第3節 東 歐

現在 東歐란 一般的으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東獨의 蘇聯 衛星 7個國에

「유고슬로비아」를 첨가한 8 個國을 가리킨다. 이들 諸國은 1815年부터 1918年 사이의 約 100年間에 탄생되었다.

따라서 東歐諸國은 一般的으로 말해 民族國家의 基礎가 없는 人爲적으로 만들어진 國家들이다. 1918年의 東歐를 만든 것은 「월슨」의 「民族自決主義」에 의한 것인데, 이에 의하여 民族國家를 形成하였으나 이 地域은 東歐의 防壁이 되는 事態 때문에 도리어 民族國家의 形成에는 障礙요소가 되었다.

한말로 東歐라 하더라도 그 民族主義에 있어서는 南北으로 區別하여 다를 必要가 있다. 즉 「카르파티아」 山脈의 北쪽에는 自然的 境界線이 없고, 國境은 政治的인 力學關係에 의하여 決定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民族의 對立이 항상 國境 싸움으로 번졌다. 다른 한편 「카르파치아」 山脈의 南쪽에는 自然的 境界는 있었으나, 이것이 民族的 境界와 一致하지 않는 點에 問題點이 있어져 항상 이 地域內는 分畧이 따랐다. 이를테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國民은  $\frac{2}{3}$ 가 「체코」人이고,  $\frac{1}{3}$ 이 「마자르」人이며, 「트란실바니아」에서는  $\frac{1}{2}$ 이 「루마니아」人,  $\frac{1}{3}$ 이 「마자르」人, 나머지가 獨逸人이다. 이처럼 地理的으로는 한 爭位를 이루는 한 地方에 다른 地方의 多數民族이 混入돼 있을 뿐만 아니라 宗教的으로도 「그리스」教, 「로마, 가톨릭」教, 「프로테스탄트」, 回教가 混在되어 民族主義以前의 分裂이 뿌리를 박고 있었다.

이와 같이 多彩로운 異民族의 混合에서 온 鬪爭에도 不拘하고 東歐는 征服者가 「로마」, 「몽고」, 「터어키」, 「오스트리아」, 獨逸

그리고 「러시아」등 어느 것이나 強力한 外部로 부터의 侵入者  
이여서 東歐 諸民族은 그 支配아래 忍從을 強要 당하면서도 더욱  
더 은연중에 民族의 矜持를 長期間에 걸쳐 保存하고 있었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등이 그러  
하였다.

원래 「로마」帝國이 支配하던 東歐에 居住하던 民族 中 現存  
하는 것은 히랍人, 「일리리아」人( Illyrians 現 알바니아人의  
先祖 ) 및 「트라키아人( Thracians )의 分派로 보여지는 「다키  
아」人( Dacians 現 루마니아人의 先祖 )이지만, 어느 民族이건  
많은 侵入民族과 混血이 되어 있다. 이밖에도 「스라브」族  
( Slavs )등이 있으나 이들은 大部分 外國에서 移住해 온  
民族이다.

第 1 次 世界大戰以後의 東歐의 民族問題를 處理하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民族自決原則」이 立脚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르사유」會議의 諸決定이 事項의 民族問題를 最終的으  
로 解決하지 못한 것은, 이 地域에 少數民族問題」와 기타 民族的  
紛爭이 殘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폴란드」는 「民族自決 원칙」을 準用하면서 深刻한 內紛을 겪었  
고 南「스라브」人의 合成國家인 「유고슬로비아」도 深刻한 民族問  
題를 內包하고 있었다. 그밖의 國家에 있어서도 民族問題에 따른  
紛糾는 계속 되었다.

한편 「나치」 獨逸의 東歐의 侵略과 支配는 帝國主義勢力에

의 한 半植民地의 經濟的 收奪을 隨伴하였다. 소위 "大祖国戰爭中 蘇聯 首相 「스탈린」이 「로지아」 民族의 偉大性을 主張하면서 "打倒 獨逸 侵略者" 絶叫한 것은 「소비에트」 民衆이 獨逸 「파시스트」의 侵略, 前에 社會主義의 祖國을 防衛할 必要性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떠한 이와같은 東歐諸民族의 反「나치」 抵抗 運動은 主体的인 "民族戰爭"을 意味한다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東歐諸國의 民衆의 蜂起는 다만 獨逸 帝國主義 支配에 대한 抵抗뿐만 아니라 그 支配에 따른 從屬的 地位를 對等한 關係로 向上되고, 自國의 半封建的 社會體制에의 批判에 基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戰中에서 戰後에 이르기 까지 東歐의 民衆的 運動은 当初부터 "民族의 解放"과 "反帝國主義, 反封建主義의 鬪爭"의 두가지 課題를 實現하기 위한 것이었다.

戰前의 過激한 民族主義는 自己의 獨裁的인 支配權을 確立하기 위하여 支配階級을 助長하여 行使하였지만, 東歐의 抵抗運動은 革命的 要素와 民族的 要素의 두가지 要素의 相互關係의 變化의 過程에서 展開되고 있다 하겠다.

또한 "人民戰線"이나 "祖國戰線"이라는 形態로 東歐에서 展開된 諸國의 反「파시스트」戰線 가운데는 民族主義的 分子와 革命的 分子가 다같이 參加하고 있다.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루마니아」 등 大戰中樞國側의 民族主義는 「나치」 독일에 反對하여 反「파쇼」戰線을 通하여 加担하고, 抵抗運動도 赤軍의 優勢下에 독일군의 敗色이 濃厚해졌을 때 展開되었다. 이에 대하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등 諸國은



「나치」獨逸의 侵略과 占領을 포함한 從來의 獨逸의 支配에 抵抗한 民族主義的 分子가 緊密한 提携下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反「파쇼」人民戰線은 当初는 獨逸을 打倒하고 民族의 獨立을 回復하는데 第1義的인 目的이 있었고, 戰線에는 反獨逸的 分子도 參加하여 過激한 民族主義를 展開하였던 것이다.

1948年 6月, 東歐 8個 共産黨代表는 「루마니아」에서 會議을 開催하고 「유고슬로비아」共産黨의 內情에 관한 決議를 採択하여 「유고슬로비아」共産黨指導部가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를 否認하고 民族主義的인 方向으로 獨走하고 있는 것을 批判하였다. 그 決議는 「유고슬로비아」共産黨의 첫 제는 「소비에트」聯邦에 대한 敵意, 둘째로 「맑스. 레닌」주의에 대한 基本的인 誤謬, 셋째로 共産黨 組織의 人民戰線에의 解消, 넷째로 民族主義的 偏向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批判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批判은 「유고슬로비아」 抵抗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蘇聯 및 기타 人民民主主義諸國과 「유고슬로비아」와의 經濟關係는 漸次 惡化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고슬로비아」는 中共과도 交流를 擴大하고 美國을 비롯한 東歐 資本主義諸國의 援助를 받아드리고 있다. 어떠한 列強諸國은 民族主義를 東歐에 있어서의 權力鬭爭의 武器로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要컨대 列強의 力關係의 依存에 의한 他律的 行動으로 부터 自國의 安全을 保全하는 中立主義는 東歐 民族主義가 크게 作用하고 있다. 그것은 國際關係의 激度性에 對處하는 하나의 方法이면서 自國의 立場을 保全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 第3章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民族史的 非正統性

#### 第1節 共產國家에서의 民族主義의 悲劇

가. 아시아 地域에서의 例

中國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나 印支半島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나를 莫論하고 共產黨이 내세운 第1次的인 目標은 (反帝民族解放) 이었다. 中共이나 印支半島 共히 오랜 歲月을 두고 外來帝國主義勢力의 桎梏 下에 놓여 있었다. 第2次世界大戰은 이 帝國主義勢力을 決定的으로 衰退, 沒落케 하였다. 그러나 2次大戰後의 內戰 過程에 있어서 共產黨은 中國에서 또한 印支半島에서 敵對勢力을 帝國主義 勢力의 앞잡이로 規定하고 素朴한 <내쇼널리즘>의 感情에 呼訴하여 勢力을 擴大하고 戰議를 昂揚시켜 나갔다.

中共의 경우 2次大戰 過程에 있어서 抗日民族統一戰線을 結成하여 一般大衆을 動員하고 力量을 비약적으로 增強할 수 있었던 共產黨은 戰後 國共內戰에 있어 美國이 國民黨政府를 도와주고 있다는 理由로 美國을 <帝國主義者>로, 國民黨을 그 <앞잡이>로 몰아버리고 <反帝鬪爭·民族解放鬪爭>이라는 美名下에 共產化를 企圖하였던 것이다.

印支半島의 경우는 事情이 좀더 複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2次大戰 過程에서는 日本이, 戰後 한동안은 프랑스가, 그리고 50年代 後半期부터는 美國이 <帝國主義> 勢力으로 看做되었고 共產主義運動

은 <反帝闘争>의 美名下에 民族의 自主獨立을 願하는 大衆의 政治的 에너지를 吸收, 動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側面에서 共產主義는 내쇼널리즘을 가리켜 부르조아의 政治原理이며 政治運動이라 하여 이를 排擧하였다함은 이미 第1章에서 檢討한바 있었다. 그러나 中國에서의 国民党과 印支半島에서의 右翼勢力은 이데올로기의 側面에서 共產主義者와는 달리 내쇼널리즘을 指導原理로 받아들이고 이를 積極的으로 鼓吹해 나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實際 運動面에 있어서는 부르조아지가 아니라 오히려 共產黨이 民族의 獨立, 解放의 看板을 내걸고 2次大戰後 내쇼널리즘運動에 있어서 主導權을 차지해 왔었다는 것은 하나의 逆說이 아닐 수 없다. 階級闘争을 위한 政治集團이 階級闘争은 否認하나 民族이 大同團結하여 自主獨立을 爭取해야 한다고 力說하는 내쇼널리즘의 政治集團으로 부터 <民族>과 <民族解放>의 기치를 빼앗아 쓸 수 있다는 것은 奇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르크스는 19世紀 유럽의 부르조아지가 마치 그 階級的인 利益이 모든 階級的 利益—民族的 利益—에 符合하는 것과 같은 主張을 내세워 가지고 近代的인 市民國家의 主役으로 登場하였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2次大戰後 아시아地域의 몇몇 國家에 있어서는 그 反對로 프롤레타리아트가 마치 그 階級的 利益이 民族的 利益에 符合하는 것과 같은 偽裝된 主張을 내세워가지고 社會主義國家를 만들고 一般百姓들을 強壓하는 暴君으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中国이나 印支半島에 있어서의 共産党은 그 階級鬭爭過程에 있어서 共産主義와 내쇼널리즘을 密着시키고 無知한 大衆들로 하여금 共産專制가 아니라 民族解放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印象을 줌으로써 大衆을 幅넓게 動員할 수 있었다. 그리고 統一戰線戰略, 戰術의 巧妙한 구사는 非共産大衆을 共産党周邊에 結集시키는데 있어서 敵對陣營의 內紛을 擴大하고 그 內部崩壞를 促求하는데 있어서 크나 큰 作用을 일으켰던 것이다. 統一戰線戰略·戰術의 適用은 反共民族陣營에 內在하는 矛盾을 擴大시켰고 政府와 國民을 離間시켰고 급기야 執權 勢力을 孤立無援케 하였다. 国民党政府治下에서 <內政民主化><內戰停止><平和協商>을 부르짖고 나섰던 <中國民主化同盟>이 国民党政府를 衰退·沒落시키고 共産党的 勝利를 돕는데 얼마나 많은 奇功을 했었던가. 한편 사이공政府治下에 있어서 역시 <內政民主化><民權擁護><內戰停止>를 부르짖고 나섰던 反政府勢力이 사이공政府의 崩壞를 促求하는데 얼마나 큰 役割을 했었던가하는 것은 장황한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이들 統一戰線 戰略·戰術에 말려들어 不知不識間에 利用당했던 者는 共産專制가 成立되자 秋風落葉과도 같이 그들 自身の 沒落- 爾清-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나. 東歐에서의 例

第2次大戰後 폴란드, 捷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거리, 알바니아, 불가리아 및 유고슬라비아等諸國은 大戰過程에서 反나치스運動으로서

의 민족主義運動의 보람도 없이 蘇聯軍의 占領에 따른 武力을 背景으로 한 共產主義者들이 民族史的 正統性을 저버리고 이른바 人民民主主義國家를 形成하여 共產專制를 實施하게 되었다.

이들 東歐諸國에 있어서도 直接的인 蘇聯軍의 힘을 背景으로 共產主義者들은 初期에 있어서 亦是 統一戰線, 戰略, 戰術을 活用하였으며 一定한 段階에 이르러 肅清을 斷行하거나 또는 捷코의 例에서 볼 수 있듯이 革命으로서 共產黨이 政權을 掌握하거나 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看過할 수 없는 것은 이들諸國의 戰前에 나치스治下의 桎梏에서 허덕였으나 戰後에는 共產主義者들이 蘇聯이라는 共產主義膨脹勢力을 끌어들여 民族的 獨立을 排除하고 오히려 隸屬關係를 設定하였다는 事實이다.

다시 말하면 東歐諸國은 2次大戰前까지 傳統的인 自己文化와 歷史를 無視하고 蘇聯의 軍一統治圈內에 吸收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蘇聯에 의한 東歐諸國의 被動的인 政治過程은 크레무린의 經濟的, 政治的 또는 軍事的인 統合措置에 無條件 服從하는 過程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우선 經濟的인 支配로서 蘇聯은 東歐諸國을 모로토프計劃 (Molotov plan)에 加担케 했던바 이로 말미암아 蘇聯은 東歐諸國을 經濟的으로 搾取하는 位置에 서게 되었다. 모로토프計劃을 뒷받침하고 이를 보다 發展시키기 위한 經濟政策으로서 蘇聯은 <東歐相互經濟援助會議> (COMECON)를 1949年 1月에 創設하였다.

이 機構은 東歐諸國을 西方諸國과의 去來로 부터 斷切시키고 宗主國인 蘇聯을 中心으로 한 縱的인 經濟關係를 設定하는데 寄與했던 것이다.

東歐諸國의 共產主義者들은 이 以外에도 各樣各色的 形態로서 蘇聯과의 經濟的 隸屬關係를 設定했던바 例를 들면 貿易協定借款, 投資, 合作会社制度, 銀行에 대한 管理 또는 衛星國의 産業施設에의 蘇聯人派遣 등을 들 수 있다.

蘇聯의 東歐諸國支配方法은 單純히 經濟的인 面에 限定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政治·軍事的인 面에서도 있었다. 政治的인 것은 蘇聯共產主義敎理의 注入을 비롯하여 顧問이라는 名目으로서 各行政部署에의 蘇聯人採用이었다.

軍事的인 것으로는 바르샤바條約機構를 들 수 있는바 이로써 蘇聯은 東歐諸國에 軍事力을 駐屯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東歐諸國의 民族史的 非正統性과 아울러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分斷狀態下에서의 東獨의 <民族>에 대한 見解이다. 東獨에 있어서는 1968年에 制定된 新憲法속에 從前까지의 브르조아의인 民族의 概念에 代身하여 이른바 <社會主義的 民族> (die sozialistische nation) 이 代置됨으로써 民族史的 正統性을 偽裝하려 하였던 것이다.

東歐 共產黨인 社會主義統一黨은 1956年까지만 하더라도 民族問題에 대해서는 스탈린이 1913年에 發表한 論文 <마르크스主義와 民族問題>에서 내린 定義에 그대로 의지하고 있었다. 上記論文에

서 다음과 같이 定義를 하고 있었다.

“民族이란 歴史的으로 成立된 安定된 人間の 共同体인바 그것은 言語, 領土, 經濟生活 및 共同文化속에 드러난 心理的 本性的 共同性的 地盤위에 成立한 것이다.”

이와같은 스탈린의 定義는 그 뒤 1952년에 <마르크스主義와 民族 및 植民地問題>라는 論文에서는 다음과 같이 補充되었던 것이다.

“브르조아의 民族은 資本主義의 崩壞와 더불어 改造가 되고 社會主義的 民族에 의해서 代替가 된다. 이러한 새로운 民族은 資本主義의 清算의 結果 남은 브르조아의 地盤위에서 成立·發展하여 社會主義 精神속에서 急進的인 變形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民族概念에 관한 스탈린理論은 1956年以後부터 東獨共產主義理論家들에게 不充分한 것으로 認識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勞動者階級の 指導에 의한 社會主義民族으로의 民族變化를 說明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67년에 刊行된 <政治小事典>에서 東獨의 이데올로그인 A·코징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即,

“民族이란 一般的으로 資本主義의 經濟的인 社會形態의 形成과 더불어 合法的으로 成立한 社會의 構造的 및 發展的 形式으로서, 그것은 全世界的인 規模에 있어서 共產主義의 經濟的 社會形態가 完全한 勝利를 거두기까지의 긴 歷史過程에서 社會發展에 必要한 機能을 갖는다. 그 機能이란 人間을 커다란 持續

的인 共同体속에서 結束시키는 機能이니 이와같은 共同體의 테두리 안에서 生産力과 文化와 科學은 高度의 發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民族의 發展過程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共同體形成의 機能이란 무엇보다도 經濟生活, 領土, 言語, 文化 및 社會心理의 共通性을 意味한다. 設或 유럽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機能의 大部分은 資本主義的 社會形態 보다도 훨씬 먼저 形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의 發展과 關聯하여 비로서 그의 強力한 共同體形成의 힘을 獲得하였으며. 그러므로써 同時에 民族의 本質的인 特性이 되었던 것이다. \* 코징스의 이러한 定義는 그의 <政治小事典>이 東獨의 社會主義 統一黨 第7次 全党大會以後에 나왔다는 點으로 보아 바로 그 이듬해 東獨의 새 憲法을 마련하게 된 黨의 見解를 充實히 反映하고 있다는 事實에서 注目을 끄는 것이다.

코징스의 定義에 對변되고 있는 東獨共產主義者들의 새로운 民族觀이란 民族은 階級鬭爭으로 特徵지워지는 歷史的 時期를 넘어서도 存続은 하되 부르주아的 民族은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敵對的인 階級들로 分裂되며 階級鬭爭에 의해서 뒤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오직 勞動者階級이 이 경우에 帝國主義의 除去와 社會主義의 達成을 위한 鬭爭을 通해서 民族의 참된 이해를 代表하게 되어 여기에서 勞動者階級은 搾取와 壓迫으로 부터의 解放이라는 社會的 課業과 帝國主義의 威脅으로 부터의 解放이라는 <民族的 課業>을



連結하고 있다고 說明하였다. 그러므로써 勞働者階級을 여기에 하나의 <質적으로 보다 높은 形態의 民族共同体>를 完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이 勞働者階級이 戰取한 社會主義的 民族은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階級對立이 없으며 全民族의 政治的, 精神的 統一에 의해서 特徵지워져 있기 때문에 브르조아의 民族보다는 견고하다고 그들은 主張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東獨生産主義者들이 民族조차도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事實을 発見하게 된다. 東獨共產主義者들에게는 獨逸땅에 東獨과 西逸이라는 두개의 國家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民族조차도 <브르조아의 民族>과 <社會主義的 民族>의 두개가 存在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는 國民의 어느 特定層만이 民族을 形成한다는 것과 相通되는 것이다. 이러한 東獨共產主義者들의 民族概念은 다른 어느 共產主義者들로 부터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獨逸民族은 오늘날 東獨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意識적으로 分裂되어 民族史的인 正統性을 拒否당하고 있는 것이다.

## 第2節 民族主義機能面에서 본 共產國家의 非正統性

<우리>라고 하는 民族集團의 構造를 文化, 政治, 經濟等 세가지 體系로 分解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라는 民族集團이 共有하는 이미지의 體系와 이것을 再生産하는 情報回路를 文化體系로서 把握하며, 이 集團의 分業體系와 이것을 再生産하는 權力體系를 政治體系 속에 包含시키며 또한 이 集團에 있어서의 財貨 및 서비스의 配分體系와 이것을 再配分하는 매카니즘을 經濟體系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體系를 考慮할 때 民族集團의 機能으로서는 첫째, 一定한 文化, 政治, 經濟體系 속에서 形成되는 單純히 <우리>는 <우리>일 수 밖에 없다는 自己認識의 機能, 둘째, 體系變革的 作用을 갖는 일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이미지를 提示하는 機能, 끝으로 體系와 意識을 結合시키며 相互關係를 規制해 나간다는 形態로서 <우리>의 實踐을 組織化하는 機能等を 들 수가 있을 것이다.

一定한 文化, 政治, 經濟體系的 條件이 具備되었을 때 民族集團은 民族集團으로서의 自己確認이 可能하며 여기에서 民族意識이 솟아나올 것이며, 民族意識으로 부터 將來의 비준이 生成되는 경우 어떤 文化的, 政治的, 經濟的 課題가 民族的 課題로서 取扱되어 各己體系에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라는 民族의 實踐을 組織해 나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文化的, 政治的, 經濟的 諸活動의 組織化이며 여기에  
나소날, 리더십프와 文化的, 政治的 및 經濟的 3體系와의 相互作用  
問題가 重要性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民族意識, 民族的 課題, 民族的 리더십프  
라는 세가지 側面에서 民族集團의 文化的, 政治的 및 經濟的 機能  
으로서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 民族意識面

上記한 바와 같이 民族意識이라는 것은 民族集團이 民族象徴을  
通하여 <우리>를 <우리>로서 自己確認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  
어서 가장 重要的 要素는 民族象徴 ( Nation Symbol ) 을 通하여  
自己確認된다는 事實이다. 卽, 民族보다 小規模인 血緣的 또는 地  
緣的인 <우리>라는 集團에 있어서는 적어도 實感的이며 具體的인  
連帶感—가족, 마을等의 第1次的 集團內에 있어서의 直接的인 接觸  
으로 부터 오는 感情—이 <우리>라는 意識의 밑바닥에 깔려있  
는데 대하여 民族意識에 있어서는 오히려 實感を 떠난 抽象的인 심  
볼이 <우리>意識을 創造하는 것이다.

그러나 民族意識이 내이손·심볼의 뒷받침을 받는다고 해서, 恣意  
的으로 내이손·심볼을 任意의 集團에 賦課하여 民族意識을 만들어  
낼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民族意識의 形成을 可能하게 하는  
條件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即, 그것은 다름아닌 文化的, 政治的 및 經濟的으로 民族集團이 持續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表現한다면 民族史- 歷史의 連續性和 永久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어떤 民族集團이 形成되기 위해서는 同一한 民族言語, 民族的 性格, 民族的 傳統, 宗教的 또는 風俗面에서의 共通點이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비로서 民族意識은 씩트며 成長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民族의 歷史와 더불어 繼續되는 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볼로레 타리아體制의 構築 및 그 成長을 위하여 民族意識을 可能케 하는 모든 條件을 부르조아지의인 것이라고 拒否할 뿐만 아니라 抹消시켰거나 시키려고 全力을 傾注한다.

바꾸어 말하면 文化體系面에서의 民族意識을 條件지어 준 要素들을 除去하고 이른바 共產主義人間型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새로운 文化體系를 構成하고 그것을 學習이라는 手段을 통하여 強要하고 있다. 더우기 共產國家에 있어서 1人獨裁體制를 構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蘇聯의 스탈린時代나 오늘날의 金日成의 例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歷史를 날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民族意識과 不可分の 關係가 있는 것은 政治體系이다.

民族集團은 社會的 動員(Social Mobilization)이 可能한 경우 自發的으로 自己役割을 選擇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民族集團은 閉鎖的 社會와는 달리 構成員이 어떠한 役割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各自의 能力과 選擇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民族集團의 政治體系에 根本的으로 어긋나고 있는 것이

共産國家에 있어서의 政治體系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共産國家에 있어서 表面上으로는 役割의 自由로운 選擇을 云々하고 있으나 實質上으로는 이 世上에 태여날 때 이미 自己의 役割은 宿命的으로 規定되고 있을 程度로 選擇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 가장 代表的인 例는 共産國家에서 말하는 反動分子라는 用語라고 할 수 있다. 卽, 共産國家에 있어서 反動分子라는 捺印이 찍힌 構成員은 그들의 役割이 무엇인가하는 것이 이미 規定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共産國家에 있어서 反動分子가 아닌 다른 構成員들은 役割選擇이 自由스럽다는 말은 決코 아니다. 이들의 役割選擇마저도 共産黨에 의하여 完全히 統制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 나. 民族的 課題面

一般的으로 課題라고 하는 것은 있는 現實의 이미지에 代置된 未來에 있어야 할 또는 바람직한 狀況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民族的 課題란 現在의 民族의 이미지에 代置된 將次에 있어야 할 또는 바람직한 이미지인 것이다.

이것을 다른 角度에서 말한다면 民族的 課題는 民族意識을 課題라는 世界속에 가지고 갈때 發生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卽, 民族的 課題를 더욱 具體적으로 생각한다면 民族的 傳統의 擁護라는 歷史的 文化的 課題이며 民族獨立이라는 政治的 課題이며 民族의 繁榮이라는 經濟的 課題인 것이다.

共産國家에 있어서 提起되고 있는 課題들이 과연 이러한 課題들

인가 하는 것은 매우 否定的이다. 이미 위에서도指摘한바 있드시 共產國家에서는 民族的 傳統의 擁護는 고사하고 이것을 철저히 破壞하고 새로운 文化體系의 形成이 課題로 登場되고 있다. 한 代表的인 例로서 中共에 있어서 進行되고 있는 一種의 文化革命을 들 수 있다. 또한 오늘날 北傀가 推進하고 있는 韓民族의 固有한 傳統의 破壞와 외곡을 들 수가 있다.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이러한 徹底한 民族的 傳統에 대한 破壞는 그 나름대로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即,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共產社會를 構築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一人獨裁를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傳統性은 그들에게 있어서 障害要素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民族的 傳統의 擁護를 破壞하고 異質的인 要素를 便宜에 따라 一般百姓들에게 強要한다는 것은 民族史의 永続性을 拒否하고 오히려 그것을 斷切시키는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다.

한편 民族的 獨立의 問題에 있어서도 共產主義者들은 未來의 이 메이지보서의 課題가 아니다. 비록 共產主義者들이 民族的 課題를 民族獨立 乃至 主体性을 提示한다는 치더라도 그가 內包하는 意味內容은 그것과는 全혀 相反되는 것이다.

即, 共產主義者들은 民族의 獨立보다는 國際的 prol레타리아의 連帶를 부르짖고 있으며 主体보다는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에 매달려 그것을 敎條主義的으로 實踐에 옮기려하고 있다.

오늘날 北傀가 主体性이라는 것을 強力하게 提示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그 主体는 결코 民族的 主体 乃至 獨立을 意味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을 實踐함에 있어서의 獨自性을 갖겠다는 意味를 갖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이런 狀況에 있어서 民族的 獨立은 하나의 偽裝된 口號는 될망정 實質的인 民族的 課題는 아닌 것이다.

經濟的 課題로서의 民族的 繁榮에 있어서도 共產主義者들은 一部 特權層의 繁榮을 課題로 삼고있다. 北傀의 現實에서 보면 強力한 計劃經濟下에서 北傀住民들의 要求와는 關係없이 生産과 配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歷史적으로 보면 民族集團의 形成은 그 集團規模에 있어서의 市場의 成立을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은 이것을 拒否하면서 <民族的 繁榮>을 부르짖고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愛用하는 歷史性을 無視한다는 矛盾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다. 民族的 리더쉽프면

民族的 課題解決을 위하여 大衆을 動員하고 民族的 一體感을 形成하여 維持해 나가는 리더쉽프를 民族的 리더쉽프로 概念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리더쉽프가 形成되지 않는 限 民族的 課題는 或時 意識될 망정 民族主義的인 實踐으로 結晶될 수는 없는 것이다. 勿論 民族主義的인 狀況이 아닌 곳에 民族的 리더쉽은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리더쉽프는 民族的 리더쉽프로서 理解될 수 없다. 왜냐하면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支配手段은 오로지 物理的인 強權만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一般百姓에게 一方的으로 下向的인 命令만이 있으며 그 命令의 實踐은 強制力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強制力이 作用하지 않는다는 치더라도 自己批判等을 통한 統制手段에 의하여 實踐하지 않고서는 백여날 수 없는 狀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民族主義의 機能面에서 共產國家가 제대로 作用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檢討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發見할 수 있는 것은 어느 機能을 莫論하고 共產國家에서는 한결같이 發揮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共產主義者들이 세아무리 民族主義를 云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만이며 偽裝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共產國家는 一般的으로 民族主義面에 있어 正統性을 欠如하고 있는 것이다.

### 第 3 節 正統性的 概念에서 본 共產國家의 非正統性

序論에서 우리는 正統性的 概念에 대하여 言及한 바 있다. 즉 治者와 被治者間의 同意, 合法性, 合理性을 土臺로 한 權威의 能力을 正統性이라고 概念規定하였던 것이다.

이 節에서는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權威의 能力이 果然 治者와 被治者間의 合意, 合法性 및 合理性을 土臺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分析, 檢討하고 그 正統性与否를 評價하고자 한다.

共產國家一般에 있어서의 實際的 支配機關은 共產黨이다. 共產國家에 있어서도 政府의 形態와 體制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純全히 黨掌握下에 있는 道具에 지나지 않으며 黨目的遂行上 黨에 의하여 運營되고 黨의 獨斷的 政策에 따라 機能을 發揮하는 것이다.

모든 政府官吏들은 共產黨에 忠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大部分은 共產黨員으로 充當되고 있다. 黨組織은 中央政府로부터 始作되어 末端의 部落에 이르기까지의 行政은 勿論 立法의 모든 分野를 監視하고 統制한다.

政府施政面의 巨大한 部分을 國家經濟規律下에 두고 工場, 集團農場의 勞動狀態를 監視하기 위하여 黨組織體를 構成하고 심지어는 軍隊內에 까지 黨組織體를 갖고 있다.

蘇聯에 있어서 1936年의 憲法은 共產黨이 享有하는 獨占的 地位를 認定하고 있는바 그 126條에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即,

“勞動者의 利益에 適合하고 人民大衆의 組織的 自發性과 政治活動을 發展시키고자 蘇聯市民은 公共組織 즉 勞動組合, 協同組合, 青年組織 및 國防組織, 文化的, 技術的, 學術的 團體를 構成하는 權利를 保障받는다. 이리하여 勞動階級과 其他 勤勞者諸層中의 가장 積極的이며 政治的이고 意識的인 市民은 社會主義制度를 強化發展시키기 위한 鬪爭에 있어서 勞動者의 前衛이고 公共的

이며 國家的인 勞動者 全組織의 指導的 中枢인 蘇聯共産党에  
結合된다.

이 条文에서 보면 團 組織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으나 그 自由  
는 다른 모든 自由가 그리하듯이 共産党的 判斷에 달려 있는 것  
이다.

共産主義者들의 見解에 의하면 모든 政治組織은 各階級利益의 代  
表者로 構成되어야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나 共産党은 蘇聯이 独  
斷的으로 認定하는 階級社會의 利益만을 代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政治組織體의 必要性은 없고 共産党에서 認定하지 않는 政治  
團體를 構成하려고 하는 者는 누구할 것 없이 人民의 敵으로 宣  
言되고 強制勞動收容所에 收容되기 마련이다.

이와같이 共産党만 唯一最高의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은 共産  
党的 解訳 乃至 判斷에 따라야 한다는 論理는 非合理性을 內包하  
고 있음을 다시 말할나위가 없다.

治者와 被治者間의 合意라는 面에 있어서의 合理的인 手段은 選  
挙이다. 共産國家에 있어서도 制度上 選舉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代議員을 選出하는 경우 共産党이 추천한 單一候補에 대한  
選舉만이 實施된다. 다시 말하면 複數政黨이 認定되고 있지 않으  
므로 他党的 候補者가 있을 수 없으며 비록 있다손 치더라도 그  
것은 어디까지나 共産党傘下團體의 候補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單一候補에 대한 選舉는 어떤 選擧의 問題가 아니라 可否의 問題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어떤 政策에 대하여도 贊反의 意思表示가 可能한 投票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提示된 政策은 共產黨의 것이며 이에 대하여 國民이 敢히 贊否를 말할 수 없게되어 있다. 더욱기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여러 意見이 大衆 媒介體에 의하여 自己意思를 表示할 수 있는데 反하여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여러 媒介體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媒介體는 하나에서 열까지 共產黨에 의하여 独占되고 있다. 設使 一般百姓이 이 媒介體를 利用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共產黨의 것과 一致되었을 경우에 限하나 現實的으로는 全然 利用不可能한 것이다.

이와같이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治者와 被治者間에 合意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關係는 非合理性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러한 狀況에 있어서는 正統性이라는 問題조차 考慮될 수 없는 것이다.

## 結 論

마르크스나 엥겔스에 의하여 主張된 共產革命의 國際主義的 性格이 레닌에 와서는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으로 바뀌었고 이는 다시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으로 變質, 民族主義 認定으로 까지 擴大된 論理展開의 狀況을 概括하였다.

이러한 變質을 겪으면서도 共產主義의 國際主義的 性格을 根本的으로 바꾸지 않고 百餘年동안이나 이를 바탕으로 民族이나 國家問題를 다루어온 그들의 論理의 持續性 試圖에 우선 敬탄을 금할수 없다. 무서운 情熱이요 努力이다. 그러나 政治思想 自体가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時期마다의 空間的 制約이란 다르기 마련이어서 普遍的 理論이라 하더라도 適應上의 特殊性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의 國家理論의 發達過程이나 民族主義에 대한 理論形成 自体가 앞에서 본대로 時空間的 狀況에 민감하게 適應되어 온 것이거니와 특히 北韓社會에 「共產主義體制」가 構築되어 온 과정을 두고는 보다 그러한 制約이 많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 共產主義運動의 體系가 어느 程度 잡히게 된 것은 朝鮮共産黨이 出現한 1925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때의 事情만 보아도 當時의 韓半島의 主觀的 与件이나 周圍의 客觀的 狀況이 그대로 反映된 形態의 共產主義의 모습이다. 主觀的 与件으로는 日帝의 殘或한 殖民統治에 대한 國權回復의 民族抵抗意識, 經濟的 貧窮등을 들 수 있으며, 客觀的 狀況으로는 1917

年の 러시아 革命의 影響, 1919年에 創立된 第三 인터내셔널의 民族解放運動에 대한 認識增大, 蘇聯共産党主導의 世界共産革命遂行등을 들 수 있거니와, 이러한 면모가 1925年度에 体系화된 朝鮮共産党的 諸般 事情에 그대로 反映되었다. 呂運亨, 趙東祐 등의 民族主義勢力들과의 結合을 통한 反日, 反帝運動의 鼓吹, 朴憲永이 中心된 朝鮮共産党再建委의 1928年 코민테른의 「12月 提議」에 의거할 것 발표, 1945年 8月 長安派 共産主義者들의 코민테른, 1930年 決議事項인 一國一黨主義原則에 立脚한 共産党 統一化 試圖 등의 例示는 이러한 断面을 말해주고 있다.

北韓이 共産革命遂行過程上, 고려해야 할 客觀的 狀況으로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에 中共勢力이 인적해 있다는 地政學的 要件 또한 看過할 수 없다. 1955年 반등會議를 起點으로 蘇聯과의 對立相이 露骨화된 以後는 再論의 餘地도 없거니와 2次大戰이 끝날 무렵에도 中共의 北韓에 대한 影響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理論面에서까지도 그러하였다. 1945年 朴憲永이 當面革命課題를 說明하면서 「人民民主主義, 革命遂行」云云할 때의 「人民民主主義」의 概念부터가 그러한 것이다.

所謂 人民民主主義는 「人民民主獨裁」를 뜻하는 것으로 부르조아革命도 社會主義革命도 아닌 그 中間形態의 革命을 말한다. 勿論 여기에서 말하는 人民民主主義의 意味는 2次大戰後의 東歐諸國의 特殊한 權力形態인 勞動階級 主導下의 民族的 民主主義의 諸派의 聯合形態와 相通하는 것이나, 보다 根源만으로는 毛沢東의 新民主

義論과 內容上 더 깊은 相關性을 가지고 있다. 毛沢東은 新民主主義를 「넓은 型的 民主主義革命」도 아니며 그렇다고 러시아 10月革命과 같은 「社會主義革命」도 아닌 「中間型的 革命」이라고 說明하였는 바, 이는 內容上 朴憲永이 내세운 人民民主主義革命과 同一한 것이다. 이것은 事實上 中共이나 北韓과 같은 東洋社會 一般의 社會歷史的 特徵에서는 半封建的 半植民地的 狀況이 아닌, 蘇聯社會에서 곧바로 社會主義革命 段階로 옮겨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人民民主獨裁」의 段階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을 革命段階와 관련한 한 예이지만 北韓의 경우 일찍부터 적잖게 中共의 影響을 받아왔던 것이다.

多少의 장황한 說明이 되었으나 이러한 北韓 共產主義運動의 時間的 空間的 制約性은 北韓 共產主義理論의 展開나 運動의 內容에 있어 恆時 留意되어야 할 點이라 생각되거니와, 그들의 國家觀이나 民族觀 역시 이에 例外가 아닌것 또한 明白한 일이라 하겠다.

####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民族觀과 國家觀

金日成이 北韓에서 처음 平壤群衆大會에 나가 한 1945年 10月 14日의 演說에서 「全民族이 完全히 大同團結하여 民主主義 自主 獨立國家를 建設하자. 朝鮮獨立萬歲! 蘇聯軍隊와 스탈린大元帥 萬歲! 朝鮮民族의 굳은 團結 萬歲!」라고 한 表現은 解放直後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民族觀을 한마디로 그리고 있다고 하겠다. 當

時 우리 民族의 強烈한 民族意識에 便乘하면서 스탈린 絶對權力下의 러시아 共産党的 影響力에 대한 比重을 暗示하는 등 그들의 「民族解放戰爭」에 대한 內外的 立場을 잘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民族主義 勢力과의 聯合이 當時 北韓共産主義者들의 內的 与件으로 그만큼 重要한 것이었으며, 그후 北韓에서의 共産主義者들은 꾸준히 民族主義 各派와의 戰略的인 提携를 試圖했고 이러한 內容을 各種 網領에 重要 項目의 一部로 挿入하였다.

다시 말하면, 北韓 共産主義者들은 앞서 言及한 레닌의 民族觀, 즉 民族主義는 本質上 부르조아지의 支配와 搾取를 擁護하는 것에 不過하여 부르조아지의 消滅로서 民族問題도 解決된다는 階級 종속의 概念에 原則적으로 다르고 있으나, 여기에는 北韓에서의 客觀的 主觀的 与件에 다른 特殊性이 全然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点이다. 앞서 스탈린에 의해 說明된 바의 부르조아지 民族主義와 프롤레타리아 民族主義의 類型的 区分, 이에 따른 「民族解放鬪爭」의 支援, 2次大戰後 東歐諸國에서 팽배했던 「民族共産主義」主張의 여파, 1960年 12月 모스크바 聲明에서 表現된 民族民主主義의 理論展開, 그리고 漸次 극열해진 中·蘇內의 理念論爭의 共産主義에 있어 民族에 대한 理論自體의 變質이라는 客觀的 狀況變化와, 抗日 鬪爭을 비롯한 韓民族의 끈질긴 民族意識등을 등한할 수 없다는 主觀的 与件의 制約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中·蘇間의 紛爭은 北韓의 獨自性을 強化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다. 所謂 「主體」의 主張도 中·蘇의 弱少國 干渉에 대한 환멸의 表示라는 立

場에 注目할 必要가 있으며 1962年 2月10日에 開催된 党中央 委員會 四期 5次大會에 나온 것으로 알려진 「政治의 自由, 經濟의 自立, 國防의 自衛」라는 「唯一思想體系」도 이러한 事情과 無 關하지 않을 것 같다.

民族觀에 관한 共產主義理論適用上의 모호성은 제쳐두고라도,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지니고 있는 特殊性 때문에만도,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民族觀은 그 概念自体도 모호한 채 共產主義運動 展開過程上의 便宜에 따른 融通性은 그대로 持續된 것이며, 특히 러시아의 狀況 과도 달리, 民族間의 問題가 아니라 單一民族으로서의 問題인 바, 이는 民族의 問題가 곧 國家의 問題와 더욱 밀착되지 않을 수 없는 北韓의 또다른 特殊性에서 단결 그러함 것 같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公式的인 國家觀은, 國家를 「歷史發展過程上의 產物」로서 「支配階級の 利益을 보호하는 權力機關」으로 보아, 資本主義의 멸망과 더불어 消滅하게 된다는 共產主義 理論 固有의 國家消滅論에 다른 國際主義的 立場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實 質上 共產主義 國家理論 自体가 그 內容上 상당한 變質을 가져왔 던 點은 앞서 指摘한 바와 같거니와, 北韓의 경우 「民族國家」形 態로서의 性向이라는 不得已한 면모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 獨自 的 國家體制 또는 權力集中의 政治形態를 위해서 레닌의 프롤레타 리아 獨裁論,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 毛沢東의 新民主主義論을 北韓 共產主義者들 나름으로서 해석하고 應用하는 融通性을 보였다.

이러한 諸般 事情은 지난 1972年 12月17日 「最高人民會議」



第五期 一次會議에서 採択했다는 「新憲法」 內容에서만 보더라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社會主義憲法」 第四條에는 아예 「마르크스·레닌」主義를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할 것을 밝히면서 「主體思想」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適用의 創造性」이나 「主體」의 云謂부터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融通性있게 適用할 것임을 前提하고 있는 것이다. 「自主」나 「獨立」을 「民族國家」에 強調하여 表現한 것만도,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臺에 의거」(同二條),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며 完全한 民族的 獨立을 위해 鬪爭」(同五條), 「主權을 行使하고……祖國의 自由와 獨立과 平和를 지키는 것」(同七條 및 一四條) 「民主主義的 民族權利 擁護」(同一五條), 「對外에서의 完全한 平等權과 自主權 行使」(同 一六條), 「國家는 自立的 民族經濟를 보호」(同三四條), 「民族文化 遺産保護」(同三七條) 등의 表現으로 多樣하게 羅列되고 있다. 北韓地域을 「自主的인 社會主義國家」로 斷定(同 一條), 「階級的 對立과 人間에 의한 人間의 榨取와 壓迫이 영원히 사라졌다」(同六條)고 하여 北韓은 社會主義社會의 段階임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事實上 이러한 社會主義社會에서는 國家가 더 이상 存在치 말아야 할 일이나, 오히려 「自主」와 「獨立」의 이름으로 國家의 權威는 더욱 強調되고 있으며, 앞서 言及한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의 實施公言 「革命政權」의 (同三條) 統一時까지의 期限附 性格의 뜻도 곁들여, 權力의 集中을 통한 獨裁體制의 合理化 試圖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民族觀, 歷史觀은 正統的 마르크시즘을 公式적으로 내어걸면서도 北韓이 가지는 主觀的 客觀的 与件에 따른 「民族國家」로서의 性格을 배제할 수 없는 딜레마에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北韓의 狀況을 考慮할 때 北傀의 正統性이 欠如되고 있는 要素로서는 다음과 같은 事項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金日成一派에 의한 政權樹立은 解放以前에 成立되었던 朝鮮 共産黨과의 關係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蘇聯軍의 1個將校로서 潛入하여 蘇聯軍의 힘을 背景으로 한 衛星政權으로서 처음부터 主體性이 欠如되고 있었다. 이와같이 成立된 傀儡政權은 韓半島에서의 自由스러운 總選舉에 의한 새로운 政府樹立을 拒否했을 뿐만 아니라 民族相殘의 武力南侵을 敢行함으로써 反民族의 行爲를 恣行하여 民族의 분노를 샀으며 나아가서 國際적으로는 侵略者로서의 烙印이 찍혔다.

둘째, 金日成一黨은 韓民族의 民族史를 繼承하기는 커녕 오히려 共產主義理論下에서 變造하고 北韓住民들에게 強制的인 學習을 통하여 變造된 歷史를 注入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固有의 民族史를 金日成의 個人에 관한 날조된 事項으로 充滿시키고 있다. 즉 北韓에 있어서는 韓國의 歷史를 통하여 主流를 形成하는 國內外的으로 屬開된 모든 民族獨立運動을 否認하고 金日成이란 이름으로 變名까지 하여 있지도 않는 個人鬪爭記를 꾸며 우리의 歷史를 變造하였던 것이다.

세계, 治者와 被治者間의 關係는 合意 위에 成立되는 것이 오늘 모든 國家의 當然하고 妥當한 關係임에도 不拘하고 北韓에서는 허 이러한 合意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狀況이다.

即, 北傀는 民族史的 見地에서나 또는 民族主義의 機能面에서나 本來의 正統性 概念에서나를 莫論하고 正統性을 主張할 何等의 根拠가 없음을 強調하는바다.